

18일 Market Index			
↑ 코스피	7516.04	↑ 코스닥	1111.09
	(+22.86)		(-18.73)
↓ 금리 (연고채 3년)	3.757	↓ 환율 (원/달러)	1496.35
	(-0.009)		(-4.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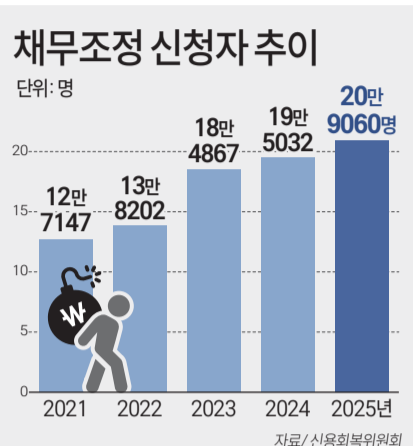
metro® 경제



햇살론, 채무조정 신청... '연체자 양산' 우려

5년새 채무조정 신청 60% 급증
햇살론 등 일부 서민정책상품
최소 6개월 연체시 위변제 진행

#.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최근 건디다 못해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았다. 햇살론과 카드값, 신용대출 등이 얽히며 상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김씨는 연체가 장기화되기 전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상담을 진행했지만, 신복위는 햇살론 등 일부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경우 일정 기간 연체가 발생해야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결국 김씨는 햇살론을 제외한 일부 채무만 조정받았다. 김씨는 "취약계층 대부분이 햇살론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작 가장 부담되는 대출은 그대로 남아 있다"며 "채무조정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취약계층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 햇살론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위한 채무조정은 일정기간 연체가 되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채무조정 신청자는 20만9060명에 달한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12만7147명)과 비교하면 60%나 급증한 수준이다.

이후에도 채무조정 신청자는 ▲2022년 13만8202명 ▲2023년 18만4867명 ▲2024년 19만5032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코로나19 시기부터 누적된 경제적 어려움을 버티지 못한 채무자들이 결국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 햇살론 '최대 1년' 연체돼야 채무조정 문제는 채무조정 수요가 늘고있음에도 햇살론 등 일부 정책서민금융 상품은 일정 기간이 지나야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신복위 관계자는 "일반채권은 짧게는

장기연체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상각채권으로 분류하지만 햇살론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실제 사례를 보면 최소 6개월 이상, 보통 1년까지 연체가 돼야 대위변제가 진행돼 채무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연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채무조정이나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이들에겐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이전 또는 30일 이하 단기 연체자를, 사전채무조정은 31~89일 연체자가 대상이다. 햇살론 등 일부 정책서민금융 상품은 실제 채무조정까지 수개월 이상의 연체가 필요한 사례가 있는 만큼 제도 간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다. <4면에 계속> /나누리 기자 yull15@metroseoul.co.kr

주식 등 30% 할인 유동성 리스크 관리

금융당국 '금융투자업규정' 마련
규정변경 예고 거쳐 내년부터 시행

금융당국이 '레고랜드 사태' 때 드러난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동성 규제 개정에 나선다.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최대 30% 할인을 적용하고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도 부채에 반영해, 위기시 실제 현금화 능력을 따질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18일 증권사 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거친 뒤, 각 증권사의 전산 시스템 구축 기간 등을 고려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산정 기준을 세분화해 '신조정유동성비율'을 도입할 예정이다. 유동자산의 가격 변동 위험도에 따라 가치를 깎아서 계산하는 할인율(헤어컷)을 반영한다. 주식과 일반 ETF는 가격 급락 가능성을 고려해 15%, 합성ETF는 거래 상대방 위험을 감안해 30%의 할인율(헤어컷)을 적용한다. AA등급 채권은 7%, A등급 이하 채권은 10%를 차감해 평가한다. 반면 국채와 특수채, AAA등급 채권, 실물형 국공채 ETF 등은 사실상 현금에 가까운 자산으로 보고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유동부채에는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도 명시하도록 했다. 우발채무를 차환 발행 증권 또는 현금유출 가능한 대출·출자·약정 등으로 구분하고 종류에 따라 산정된 잔액을 유동부채에 가산해 유동성 여력을 파악한다.

유동성 비율 규제 대상도 대폭 늘어난다.

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와 파생상품 발행사 등 23개사에만 적용되던 '유동성 규제 준수 의무'가 국내 49개 증권사로 확대된다. 증권사들은 1개월 및 3개월 유동성 비율을 각각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위기가 닥칠 때 중소형 증권사부터 무너지는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에 실질 위험도 반영할 계획이다.

집합투자증권(펀드)에서 ETF 등 개방형 펀드는 환매 소요기간을 기준으로, 부동산 펀드 등 폐쇄형 펀드는 잔존만기를 기준으로 유동화 기간을 산정한다. 또한 담보제공 자산은 예외 없이 유동자산에서 차감하고 유동부채 산정 시에는 유출률이 높을수록 부채가 증가하도록 차등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규정변경 예고 및 증권사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시작
취약계층을 제외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8일부터 1인당 10만~25만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진행된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영천시장 상점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가능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뉴스

法 가치분, 李 '경영권 존중' 언급... 노조 "파업은 강행"

삼전 노사 사후조정 오늘 결론
법원, 쟁의행위 금지 가치분 일부 인용
이재명 대통령 '긴급조정권 발동' 시사

법원이 18일 삼성전자 사측의 노동조합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치분신청을 일부 인용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까지 '경영권 존중'을 언급하며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했다. 가치분 해석을 두고 노사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 진행된 노사간 사후조정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19일로 연장됐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신우정 수석 부장판사)는 이날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지지부·전국삼성전지노동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삼성전자가 신청한 4가지 항목 중 안전보호시설 유지, 웨이퍼 변질 방지 보안작업, 시설 점거 금지 등 3가지가 받아들여졌다. 조합원 파업 참가 호소 과정의 협박 금지는 기각됐다. <관련기사 3면>

재판부는 "초정밀 미세장비인 반도체 설비는 한번 손상되면 재가동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며 "생산 차질이 전방 산업으로 이어질 경우 사후금전 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현저한 손해와 급박한 위험이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가치분 인용 직후 '평상시' 기준을 두고 노사간 해석 충돌이 빚어졌다.

노조 측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마중 의견서를 통해 '평상시'가 인력이 적은 '주말·연휴' 수준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파업기간 중 투입해야 할 인력이 최소화한다는 논리다. 이에 사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법원은 평상시란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을 의미한다고 결정문에 명확히 적시했다"며 "노조측 주장은 법원 결정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평상시란 평일이든 주말이든 그동안 해온 방식 그대로 작업하라는 의미"라며 "노조의 주말·연휴 기준 해석은 틀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를 통해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행보에 자제를 권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에 이은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을 다시 시사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 세종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에 돌입했다. <2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

메트로 한줄뉴스



▲정부, 조세이 탄광 유해 DNA 감정 착수 계획... "신속히 신원 확인"
▲강득구 "삼성 멈추면 대한민국 흔들려...민심 잃은 싸움은 이겨도 지는 싸움" /사진 뉴시스

▲부산시장 후보 토론회 격돌, 정책 사라지고 '의혹 난타전'
▲행안장관, GTX-A 철근 누락에 "국토부와 합동 안전점검"

▲장동혁 "'5·18 정신' 李·민주당 권력 확장 도구...입으로만 외쳐"
▲국힘, 정원오 고발 예정... "오세훈 흡집 내려 GTX 안전 왜곡"

트럼프, 대 이란 경고

“주어진 시간 얼마없어”

이란에 대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S NS상 으뜸장 놓기'가 재개됐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 중인 이슬람혁명수비대를 상대로 조만간 무력 사용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의 대 이란 경고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통화를 가진 직후 나왔다.

트럼프는 17일(현지시간) SNS트루스 소셜에 쓴 글에서 “이란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 핵심은 시간”이라고 했다.

이어 “(협상에 전향적 입장 취하기 등) 행동을 서두르는 게 좋을 거다. 그러지 않을 시 그들에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며 경고했다.

이스라엘 언론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SNS 글 게시에 앞서 같은 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30분가량 통화했다. 이스라엘 정부 등이 밝힌 둘 간의 공식 통화내용은 미·중 정상회담 결과의 공유였다.

아울러 트럼프가 통화 직후 SNS에 경고성 언급을 쏟아 낸 만큼, 대 이란 작전에 대해 논의했을 개연성도 있다.

네타냐후 총리 통화 후 경고 메시지 협상재개 등 이란 전향적 입장 촉구 “강력한 공습에 맞닥뜨리게 될 것”

또 이날 이스라엘 방송 채널12와 가진 인터뷰에서도 엄포가 이어졌다. 트럼프는 “그들이 그 지점(협상안 또는 절충안 수용)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강력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까지 그들에게 가했던 어떤 수위보다 더 세계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이란은 우리가 원하는 지점에 와 있지 않다”고 했다. 다만 “이란이 여전히 협상 타결을 원하고 있다고 믿는다. 향후 수일 내 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에 대해 수정안 제출 기한을 설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무응답으로 일관하거나 절충안 도출을 위한 전향적 입장을 보이지 않을 경우 공격을 재개하겠다는 압박으로 읽힌다.

이란이 내건 협상재개 조건은 크게 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향하는 에어포스 원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가지다. ▲모든 전선에서 적대행위 종식 ▲대 이란 제재 해제 ▲이란 동결자산 반환 ▲전쟁피해 배상 ▲호르무즈 해협 내 이란의 주권 인정 등이다. 호르무즈 해협 개항을 위한 선결 조건은 종전이 고, 농축우라늄 등의 핵 문제는 추후 별도의 정식 협상테이블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미국은 이 같은 이란의 요구에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이란에 ▲전쟁배상금 지급 불가 ▲미국에 농축우라늄 400kg 분량 인도 ▲핵 시설 1개 운영 유지 ▲이란 해외 동결자산 25% 해제 불가 ▲모든 전선에서의 적대행위와 협상 연계 등 5개 조건을 제시한 상태다.

이는 이슬람혁명수비대 계열 파르스통신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미 매체 약시오스는, 트럼프가 이달 19일 군사작전 감행 여부 논의를 위해 백악관 상황실에 인보팀을 소집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보다 나은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을 시 “이전보다 강력한 공습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는 지난 16일 워싱턴 D.C. 외곽의 본인 소유 골프장에서 참모진과 만났다. 참석자는 JD 밴스 부통령을 비롯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존넷 클리프 중앙정보국 국장 등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사후조정 지속... 사측, 정상출근 안내

>> 1면 ‘法 가처분, 李 경영권’서 계속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사진)이 단독 조정위원으로 직접 참관한 가운데 노사는 기본 입장을 교환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사후조정을 내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오늘 오후 7시까지 하고 19일 오전 10시에 다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이날 임직원에게 가처분 결정 관련 입장문을 배포하고 “추후 정상 출근이 필요한 부서 임직원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노조는 가처분 결과와 무관하게 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노조 측은 ‘가처분 일부 인용으로 쟁의권이 일정 부분 보장됐다’며 “예정대로 쟁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회의장 입장에 앞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만 밝혔을 뿐 대통령 발언이나 가처분 결과에 대해서는 일절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총파업 예고일인 21일까지 이들을 남긴 만큼 19일 협상 결과가 파업 여부를 최종 결정지를 전망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가상자산 거래량 급감... 거래소 실적 쇼크

중동사태 장기화... 시장 거래 위축 파생상품 취급 등 제도개선 시급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수익성에 빨간 불이 켜졌다.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 불확실성과 중동사태 장기화 등으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수료 수입이 급감해왔다. 거래소의 매출 다양화를 위해 법인 및 외국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 파생상품 취급 허용 등 국제 표준에 알맞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점유율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1분기 당기 순이익은 695억원이다. 전년 동기의 3205억원과 비교해 78% 급감했다. 점유율 2위 빗썸은 작년 1분기에는 33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적자전환했다. 같은 기간 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주요 원화거래소도 분기 적자를 지속했다.

국내 거래소들의 매출이 크게 후퇴한 것은 가상자산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거래소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수료 수익도 급감해서다.

가상자산 통계 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전 세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24시간 동안 거래된 가상자산 거래액의 총합은 약 600억 달러다. 가상자산 거래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10월의 일간 거래량과 비교했을 때 약 15~50% 수준이다.

국내 거래소의 거래량은 더 빠르게 줄었다. 18일 기준 5개 원화거래소의 일일 거래량은 약 11억 달러로 집계됐다. 작년 10월과 비교해 약 10% 수준이다. 국내 거래소는 법인 투자자의 거래를 금지하는 만큼, 환경 변화에 민감한 개인투자자의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돼 있다. /뉴시스

성향이 가파른 거래량 감소로 이어졌다. 국내 거래소들은 매출의 95~99%를 수수료에 의존하는 만큼, 거래량 감소는 수익 하락으로 이어진다.

시장에서는 시장의 투심이 단기간 내에 회복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본다. 최근의 거래량 감소가 미국 내 규제 불확실성과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에 기인해서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주시하는 것은 미 상원 표결을 앞둔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다. 클래리티법은 가상자산을 ‘증권성 가상자산’과 ‘상품성 가상자산’으로 분류하는 법안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이중규제에 노출된 가상자산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한 규율을 정립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작년 7월 미 하원을 통과한 클래리티법은 이달 14일 미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상원의 최종 표결을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공화당이 발의한 클래리티법이 최종 인준된다면 민주당에서 7표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클래리티법은 은행위를 통과할 당시에도 민주당에서 2

표를 얻는데 그쳤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는 정치지형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입법이 불발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단기간 내에 투심이 회복되기 어려운 만큼, 거래소의 매출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이 좋을 때는 수수료만으로도 영업을 지속할 수 있었지만,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주요 거래소들의 매출이 급감한 상황”이라며 “국내 거래소들의 경쟁력을 위해 법인 및 외국인 거래 허용이나 파생상품 취급 허용 등 국제 표준에 알맞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하반기 입법이 예정된 ‘디지털자산 기본법’ 이후에야 규제 완화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규제 완화가 늦어질수록 거래소들의 영업 환경도 빠르게 악화할 수밖에 없다”라며 “여야 간에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인 만큼,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분리된 규제 완화 논의가 조속히 진행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

“AI 눈높이 맞춰야”... 식품업계, 생존 방정식 달라졌다

직접검색 감소... B2AI 전략 급부상

소비자가 마트 매대를 직접 보며 브랜드를 고르거나, 포털 창에 맛집을 검색하던 시대가 저물고 있다. 식품·외식업계의 마케팅 대상이 인간 소비자에서 ‘AI 알고리즘’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어서다. 이른바 ‘B2AI(Business to AI)’ 전략이 식품업계의 새로운 생존 방정식으로 떠올랐다.

그동안 식품 기업들의 지상 과제는 대형마트의 ‘골든 존(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매대)’을 선점하거나, TV 광고 및 SNS 인플루언서를 통해 소비자에게 시각적 자극을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AI가 소비자의 구매를 대항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외형적 마케팅의 위력은 감소하고 있다. AI 추천 영역에서는 패키지가 감성 카피보다 정형화된 데이터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식품 대기업들은 자사 제품의 영양 성분, 칼로리, 원재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 등의 데이터를 AI가 가장 완벽하게 읽어갈 수 있는 형태로 재구조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과거의 검색엔진 최적화(SEO)를 넘어선 ‘AI 엔진 최적화(AIEO: AI Engine Optimization)’ 고도화다.

대표적으로 CJ제일제당은 공식몰 ‘CJ

CJ제일제당은 생성형 AI 기반 대화형 자연어 검색 서비스 ‘파이’ /CJ제일제당

더마켓’을 통해 지난해부터 생성형 AI 기술 기반의 대화형 자연어 검색 서비스 ‘Fai(파이)’를 선보였다. 상품명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기존 ‘목적형 구매’ 검색의 한계를 깨고 AI가 고객의 모호한 질문 속 의도를 파악해 제품을 골라주는 시스템이다.

소비자가 “오늘 저녁 뭐 먹지?”라거나 “고단백이면서 저칼로리인 간편식은 없을까?”라고 물으면 AI가 수많은 제품의 영양 성분, 알레르기 유발 물질, 원재료 함량 데이터를 즉시 분석해 맞춤형 상품을 제안한다. 구매 후기와 검색 패턴 등 사용자 데이터를 AI가 스스로 학습해 캠프,

홈피티 등 특정 상황(T.P.O)에 맞는 최적의 식품 조합을 역으로 큐레이션해 주기도 한다.

풀무원헬스케어 역시 헬스케어 플랫폼 ‘디자인밀’ 모바일 앱을 전면 개편하고, AI 기반의 개인 맞춤형 토탈케어 서비스를 전면내내세웠다. 기존의 단순 식단 구독 서비스를 넘어 AI가 고객의 식습관 데이터를 분석해 영양 진단부터 식단 추천, 섭취 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통합 알고리즘을 구축했다.

매일 아침 AI가 전날 섭취한 데이터를 분석해 부족하거나 과다한 영양소를 짚어주는 ‘데일리 영양 리포트’를 배달하며, 음식 사진을 촬영하거나 음성으로 메뉴를 말하기만 하면 AI가 자동으로 식단을 기록하고 영양소를 분석하는 기술도 도입했다. 회사는 전문적인 영양 설계 노하우와 고도화된 데이터 분석 기술을 결합해 라이프스타일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제품 패키지를 예쁘게 만드는 것보다 소비자가 AI에게 질문했을 때 우리 제품이 가장 먼저 매칭되도록 미세한 영양 성분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태그(Tagging)하는 작업이 훨씬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

삼성전자 노사, '평상시 유지' 해석 충돌... 파업 변수 커졌다

법원, 가처분 4건 중 3건 인용
안전보호·보안작업 유지 의무화
노조 "주말·연휴 수준이면 충분"
사측 "평일·휴일 모두 평시 수준"
노조, 예정대로 총파업 강행 방침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4월 23일 오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앞에서 열린 투쟁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차현정 기자

법원이 삼성전자 사측의 노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평상시 유지'의 법적 의미를 둘러싼 해석 충돌이 벌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영권 존중'을 언급하며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하고 노사간 두번째 사후조정마저 19일로 연장되는 등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을 이틀 앞두고 각종 변수가 복잡하게 얽히는 양상이다.

◆가처분 일부 인용, 무슨 의미인가

법원의 가처분 '일부 인용'은 삼성전자가 신청한 4가지 항목 중 3가지를 받아들인 것이다. 안전보호시설 유지, 웨이퍼 변질 방지 보안작업, 시설 점거 금지가 인용됐고 조합원 파업 참가 호소과정의 협박 금지는 기각됐다. '일부 인용'은 파업이 일부만 제한된다는 뜻이 아니라 신청 항목 중 일부가 받아들여졌다는 법률 용어다. 다만 안전보호시설·보안작업에 해당하는 인력만 파업이 제한되고 일반 제조·관리 인력은 여전히 파업에 참여할 수 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은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

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치·폐지 또는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노조 측은 법무법인 마중 의견서를 통해 '평상시'가 인력이 적은 '주말·연휴' 수준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파업 기간 중 투입해야 할 인력이 최소화된다는 논리다.

이에 사측은 "법원은 평상시란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을 의미한다고 결정문에 명확히 적시했다"며 "노조 측 주장은 법원 결정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평상시란 평일이든 주말이든 그동안 해온 방식 그대로 작업하라는 의미"라며 "노조의 주말·연휴 기준 해석은 틀렸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도 "평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취지는 평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을 가동하고 업무를 방해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다만 안전보호 관련 인력의 조합원은 파업에 참여 가능하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총파업 강행·긴급조정권 충돌할까

노조는 가처분 결과와 무관하게 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조 측은 "가처분 일부 인용으로 쟁의권이 일정 부분 보장됐다"며 "예정대로 쟁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직원 중 안전보호시설·보안작업 담당 인력은 전체의 5~10% 수준으로 알려져 파업 기간에도 근무해야 하는 인원은 1만명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예상하는 총파업 참여 인원이 4만 7000여명인 만큼 약 8000명이 파업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약 4만명은 파업을

강행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사측 입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지만 최악의 상황만 피한 것"이라며 "공급 차질과 생산 손실 우려는 여전히 있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확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SNS에서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긴급조정권 가능성을 염두에 둔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긴급조정권은 파업으로 국가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우려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동하는 제도이다. 발동과 동시에 노조는 30일간 파업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30일 조정 기간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노위 중재 결정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역대 발동 사례는 지난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이후 네 차례로 모두 조선·항공 등 국가기간망업종에 한정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노조가 가처분 결정에도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경제단체·주주 한목소리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반도체 수출액은 국가 전체 수출액의 약 37%를 차지한다"며 "파업이 강행될 경우 즉각적인 긴급조정권 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삼성전자는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의 약 25%를 차지하는 1위 기업으로 파업으로 인한 손실은 코스피 지수 전체의 하락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경련 대한민국의주주운동본부 대표도 이날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이익 연계 성과급 제도화 협약이 체결될 경우 이사회 결의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성과급 명문화가 현실화하면 사측 이사회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노조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긴급조정권 써도 끝까지 간다", "100조 적자나도 끝까지"와 같은 강경 발언이 등장하는 가운데 "중국으로 기술유출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삼척수(삼성전자 혁명 수준 요구)"라며 노조를 비판하는 글도 쏟아지고 있다. 주주·비조합원 직원들을 겨냥한 감정적 비난과 노조 비판 글이 연이어 등장하면서 사내의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경제계 "삼성전자 파업 현실화 땀 긴급조정권 필요"

경제6단체, 공동성명 내고 철회 촉구
"국가 핵심 산업 근간 흔들 우려"
반도체 수출·무역수지 악화 지적
협력업체·소부장 생태계 연쇄 타격



삼성전자 사초 사옥.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제계가 파업 계획 철회와 상생 협력에 나설것을 강조했다.

경제계는 18일 공동성명을 내고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파업 계획 철회를 촉구하면서 파업이 현실화한다면 즉각적인 긴급조정권 발동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

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성명에서 "정부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력에도 노조가 기존 입장만 고수하며 파업을 예고한 것에 깊은 우

려를 표한다"며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국가 핵심 산업의 근간을 흔들는 것으로, 노조는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계는 "파업이 발생한다면 즉각적으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국민 경제와 산업 생태계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경제계는 올해 반도체 수출액이 국가 전체 수출의 37%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수출 감소와 무역수지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국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가 요구하는 약 45조의 성과급 규모는 지난해 전체 주주 배당금의 4배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한 투자 여력과 미래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결정적 시기에 감행되는 대규모 파업은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국가적 기회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파업 강행 시 생산 차질로 글로벌 공급망 내 신뢰 훼손, 고객사 이탈, 국가 신용도 하락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경제계는 삼성전자 노조의 대규모

파업이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국가적 기회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24시간 연속 가동이 필수인 반도체 공정 특성상 파업으로 라인이 멈춰설 경우, 웨이퍼 대량 폐기와 장비 손상은 물론 그로 인한 화학물질 유출 등 대형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6단체는 파업 피해가 삼성전자 내부에 그치지 않고 수천 개 중소·중견 협력업체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성운 기자 ysw@



李 "노동권만큼 경영권도 존중"... 상호양보 촉구

삼성 최후 협상 앞두고 SNS 메시지
노동권·경영권 동등한 존중 강조
"연대·책임으로 함께 잘 살아야"

한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진다"며 "한때 제한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 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고 했다.

다만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면서 "양자만큼 음자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다. 과유불급

물극필반(過猶不及 物極必反·지나침은 미치지 못하고 같다,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대로 돌아간다)이라며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노동절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며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모두가, 또 국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책임 의식과 연대의식도 필요하겠다"고 말해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청와대에선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국민 모두 공생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기본적인 원칙적인 말을 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노동권과 경영권 모두 동등한 권리라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노사 간 양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은 것으로 보인다.

제한 헌법에 포함됐다가 삭제된 '기업 이익 균점권'을 언급한 것은 노동자 측 주장에도 역사적 근거가 있는 것이라며

달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 제한'을 언급한 것은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언급한 '긴급조정권' 발동 등 정부의 대응 가능성도 시사한 셈이다.

앞서 김 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 "김 총리 대국민담화가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면서도 "아직 대화의 시간은 남아 있다"고 말을 아꼈다. /서예진 기자 syj@



글로벌 국채금리 급등... 물가 자극 '채권 자경단' 움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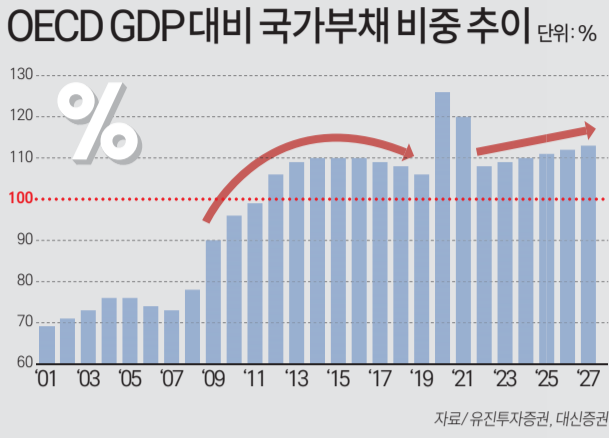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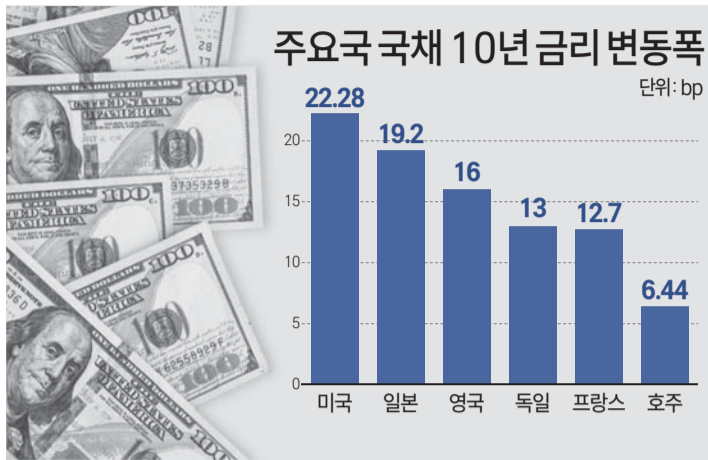
30년물 미국채 금리 '마의 5%'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국채 20년물 입찰 결과를 발표한 후 채권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 30년물 국채금리가 5.12%(15일)까지 치솟으며 월스트리트에서 우려하던 '마의 5%'를 넘어섰다. 국채 입찰은 미국 연방 정부가 시장에서 돈을 꾸는 율레 행사다. 그런데 이날 국채 투자자들은 세계 1위 경제 대국 미국이라도 앞으로 돈을 빌리려거든 이자를 더 내놓으라는 요구를 했다. 그 결과 금리 급등으로 나타난 것이다.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도 2.7%대로 올라섰다. 세계 1, 2위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미국, 일본 국채에 대해 이런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자, 국채를 내던져 정부의 비정상적인 행동과 방만한 재정 정책을 질타하는 '채권 자경단'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아무리 경제력 있는 나라라도 낮은 금리로 나랏빚을 무한정 늘릴 수 있는 나라는 없다'는 경고장을 날리는 것이다.

◆ 글로벌 채권 시장의 반란

18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5%를 돌파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모든 자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점으로 4.5%는 시장 참여자들이 지켜 보고 있는 중요한 심리적 방어선이다. 30년물은 5%를 넘어섰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3개월 전 4.042% 수준이었으나 점차 중동전쟁 영향을 반영해 왔다. 높아진 국제유가가 미국 물가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은 4월 소비자물가지표(CPI) 등을 통해 확인됐다. 이로써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후퇴했고,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日 국채 10년물 2.7%대로 올라
“일본의 국채금리 0.1%p 오르면
美 등 주요국 0.02~0.03%p 상승”

英 30년물 28년만에 최고치 경신
韓 3년물 국고채 금리는 3.757%

“채권 자경단 돌아온 것 같아
국채, 시중유입 물가자극 악순환”

일본 30년물 금리는 1999년 발행 이후 처음으로 4%를 웃돌고 있고, 일본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연 2.7%를 넘어서는 등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을 우려하던 일본이지만, 기업의 비용 부담이 소비자물가(CPI)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본은행은 금리 인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일본의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4.9%를 기록해 시장 전망치인 3.0%를 크게 웃돌았다.

영국의 자산운용사 AFH 웰스 매니저먼트는 “일본의 채권 금리가 오르면 일본 투자자들이 자금을 본국으로 거둬들이기

위해 미국 국채를 팔 수 있으며, 이는 미국 국채 금리에 상승 압력을 가한다”며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분석을 빌려 일본 국채 금리가 0.1%포인트 오르면, 이는 미국 등 주요국 국채 금리를 0.02~0.03%포인트가량 밀어 올리는 연쇄 효과를 낳는다고 전했다.

영국 30년물 국채 금리는 28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독일·스페인·호주에서도 금리가 일제히 올랐다.

우리나라 역시 1분기 GDP 성장률이 당초 전망을 크게 웃도는 1.7%를 기록했지만, 과열된 경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금리를 올려 조여야 할 상황을 만들 수 있어 투자 심리가 위축될 처지다. 18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 3.757%, 10년물 금리는 연 4.239%까지 뛰었다.

추가도 급락했다. 금리가 오르면 빛을 낸 기업들의 실적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다우평균(-1.07%), S&P500(-1.24%), 나스닥(-1.54%) 모두 크게 하락했다. 중동 전쟁이 다시 불안에 휩싸이면서 인공지능(AD)이 시장을 밀어 올릴 것이라 기대를 금리 불안이 압도했다.

이 같은 고금리 충격은 국내 증시에 곧바로 반영됐다. 지난 15일 코스피 지수는

장중 8000선을 돌파한 직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물이 쏟아지며 전 거래일 대비 6.12% 급락한 7493.18로 거래를 마쳤다. 18일에도 코스피는 반등 마감했지만, 장중 7142.71까지 밀리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 채권 자경단, 그들이 왔다

중동 전쟁발 유가 상승이 물가를 끌어 올리고 글로벌 각국의 재정 상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태에서 채권 시장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재정 건전성 우려도 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미국)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넘었다”고 보도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앞으로 10년 동안 24조달러의 추가 부채 부담을 미국이 질 것으로 전망했다. 2036년 총부채가 56조달러, 추정 GDP의 120%에 이른다는 것이다. 일본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지난해 229%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다카이치 내각은 올해 예산안을 사상 최대인 122조3092억엔으로 편성했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IMF가 발표한 ‘재정 모니터’에 따르면 전 세계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D2)은 2029년 100%를 돌파해 100.1%를 기

록할 전망이다. 1년 전 예상(98.9%)보다 높아졌고, 100%대에 도달하는 시점도 1년 앞당겨졌다. 아이엠에프는 “2차 세계 대전 직후에나 볼 수 있었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부채비율에 대해선 올해 54.4%, 2030년 61.7%, 2031년 63.1%로 전망했다.

JP모건 자산운용의 케이 허 최고투자책임자(CIO)는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출연해 “채권 자경단이 돌아온 것 같다”며 “그렇다고 해서 글로벌 채권시장이 중심을 잃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채권 자경단이 적극적으로 위력을 드러내는 시기는 높은 인플레이션 위험, 국채 발행 물량 급증 등이다”면서 “여기에 더해 정부 부문의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다시 시중에 유입되면서 물가를 자극하는 악순환 역시 금리 동향이나 채권 투자자들의 행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채권 자경단은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투자자인 에드 마테니가 1980년대에 처음 만들어낸 용어로, 국채 금리를 급등(채권 가치 하락)시켜 주로 각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흐드는 시도를 막는 시장의 움직임을 뜻한다. 1993년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의 경기 부양책도 이른바 채권 자경단의 출현으로 광범위한 미국채 구매 현상이 일어났고 결국 정책이 저지된 바 있다. 2022년에는 리스 트러스 영국 총리가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하자, 영국 국채 구매 현상이 나타났다. 트러스 총리는 영국 국채 매도세에 따른 금리 급등과 영국 파운드화 급락을 견디지 못한 채 정책 철회와 더불어 49일 만에 ‘최단기’ 낙마하기도 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1면 ‘햇살론, 채무조정...’서 계속

“국민성장펀드 8.4조 공급... 韓 미래 성장의 기반”

이억원 금융위원장
“지원금액 절반 지방에 투입
첨단 유망기업 투자통로 확대”

“국민성장펀드는 지난 4개월간 8조 4000억원을 공급했고, 공급수치를 넘어 금융의 패러다임 자체를 ‘보수적’ 관리에서 ‘생산적’ 투자로 전환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국민성장펀드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기반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8일 한국산업은행 IR센터에서 개최한 ‘국민성장펀드 성과점검 및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 등 국민성장펀드 유관기관과 학계 및 금융권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민성장펀드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성장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억원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국민성장펀드가 고위험·혁신분야에 대중물 역할을 하면서 생산적분야의 자금비용을 낮추고, 부동산·담보 중심의 자금흐름을 미래 성장분야로 전환했다”라며 “민간 금융권 역시 기업과 함께 리스크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도 고무적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지원금액 중 절반



이억원(왼쪽 세번째)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IR센터에서 열린 지역금융기관 업무협약식에서 지역금융기관장들과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학기 수협은행 은행장, 빈대인 BNK금융 회장, 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박상진 한국산업은행장, 김기홍 JB금융그룹 회장, 임중석 iM금융 총괄. /뉴시스

이상을 지방에 지원하는 등 지역의 첨단 유망기업에 투자하는 통로를 넓힌 것도 국민성장펀드의 중요한 의미”라며 “여러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국민성장펀드가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기반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의 첫 번째 발제는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이 ‘국민성장펀드 도입취지 및 평가’를 주제로 진행했다. 하 연구위원은 지난 몇 년간 국내 경제 환경의 저성장의 뿌리가 자금배분의 왜곡에 있다고 지적했으며, 막대한 유동성 공

급에도 자금이 부동산 및 담보 중심의 대출로 흘러가는 구조가 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하 연구위원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선 국가차원의 위험분담을 기반으로 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은 필연적이다”라면서도 “다만 창업기업의 5년후 생존률이 33.8%에 그치는 등 위험성이 큰 만큼, 국가차원의 리스크 분담이 중요하며 첨단산업과 인프라 투자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국가산업경쟁력을 좌우할 결정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는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국민성장펀드 지원에 대한 평가, 제기논점 및 향후 발전방향’을 주제로 진행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앞서 투자가 진행된 ‘신안우이 해상풍력’, ‘AI 반도체 생산공장 증설’ 등은 모두 첨단전략산업의 필수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투자 자유도의 대중물 역할을 했다는 데서 지원 목적에 부합했다고 평가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성장펀드의 목적은 미래전략산업과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인만큼 대·중소기업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라며 “조격차 확보를 위한 규모의 경제 확보 차원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에 국가적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세미나 진행에 앞서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인 조성 및 지역성장 프로젝트 발굴을 지원하고자 산업은행 및 BNK금융지주, iM금융지주, JB금융지주 등 3개 지방금융지주, 수협은행과의 업무협약도 진행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협약이 기계·부동산 중심의 자본 배분구조를 생산적 금융영역으로 전환하고, 경제가 선순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metro

“취약차주 일수록 정책서민금융 이용 채무조정 연계해야”

◆ “오히려 장기연체 유도”

금융권에선 이 같은 구조가 오히려 취약차주의 장기연체를 유도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연체 이전 단계에서 채무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정책서민금융이 제외될 경우 차주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부담 완화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결국 신용점수 하락과 추심 부담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장기 연체를 버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연체 위험도 존재한다. 채무조정 이후에도 햇살론 상환부담이 남을 경우 재연체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취약차주의 경우 정책서민금융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일부채무만 조정될 경우 실질적인 재기지원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취약차주일수록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비중이 높은 경우가 많다”며 “연체 이전 단계에서 채무조정을 신청했는데도 가장 부담이 큰 대출이 남아 있으면 제도 체감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채무조정이 재기를 위한 제도인 만큼 정책서민금융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유리 기자 yul115@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OPENHOPE

올원모임통장

모인다는 건
함께 희망하는 목표가 있다는 것
열어보세요!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서는
희망 가득 NH올원모임통장



희망을 키워주는
최대 2.5% 금리
[*연/세전, 일별 잔액 3백만 원까지 적용]

응원은 조건 없이
금융 수수료 면제
[*전자금융 수수료 및 CD/ATM 현금인출 수수료]

손쉽게 함께하는
모임원 간편 초대

모임 관리를 편하게
회비 납부 현황판

[NH올원모임통장 유의사항] ■ 가입대상: 개인 ■ 가입방법: 영업점, 비대면(NH올원뱅크) ■ 기본이자율: 0.1%(26.04.07. 기준, 연/세전) ■ 우대이자율: 최고 2.4%(7분이자율 포함 시 최고 2.5% 연/세전, 일별 잔액 3백만 원까지 적용) ① NH올원모임서비스에 모임개좌 등록 및 해당 모임에 모임원 2명 이상 유지 : 1.9%p ② ①번 조건 충족 및 결산일이 포함된 월의 전월 전전월 2개월 간 해당 계좌에 2건 이상 입금 건이 있는 경우: 0.5%p ■ 이자 지급 시기: 매월의 이자를 계산하여 3.6.9.12월 넷째 토요일에 계산 후 다음날 지급 ■ 우대서비스: 전자금융 수수료(인터넷/스마트뱅킹) 및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NH농협은행 CD/ATM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타행 CD/ATM 현금인출 수수료 월 5회 면제 (농·축협 기기 제외) * 가입기간 동안 이 통장으로 거래 시 매월 조건 없이 제공 ■ 유의사항: 이 상품을 NH올원모임서비스 모임통장으로 사용하더라도 예금주(모임주) 본인 명의 계좌이므로 발생한 이자소득 및 의무사항은 모임주에게 귀속됩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인정' 1억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계좌에 입출, 가입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출금 및 이체 등 잔액변동이 불가합니다. ■ 금융상품을 가입하시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 따른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이벤트 및 상품내용은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661-3000)로 문의 바랍니다. ■ 은행연합회 심의필 제 2026-06139호 (2026.04.17.~2027.04.16.)

이 대통령 “5·18 정신 헌법 수록”... 여야 광주서 신경전

李·여야, 5·18 기념식 참석

민주당, 野 지방선거 심판론 제기
국힘, 항의 피해 별도 통로로 입장



정청래(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8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 기념사를 듣고 있다. /뉴스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18일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에 집결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찾은 5·18 기념식에서 “5·18 정신이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내란 공전’을 심판해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5·18 정신을 무너뜨리는 자들”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부 시민들의 항의에 별도 통로를 이용해 기념식장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 광장에서 열린 제46주년 5·18 기념식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며 “국민 주권을 증명한 원동력이자 대한민국 현대사의 자부심인 5월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대한민국 헌법 위에 당당하게 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4·19와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으로 인해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이 있을 수 있었다”며 “그렇게 다시 태어난 오월의 영령들이 2024년 12월 3일 밤 오늘의 산자를 구했다.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은 오월의 질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절로 지켜지는 민주주의는 없으며, 오직 주권자의 열망과 실천으로 민주주의를 완성한다는 점을 뼈저리게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 단 한명의 희생자도 놓치지 않도록 ‘5·18 민주유공자 직권등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곳에 오기 전 들었던 ‘국립 5·18민주묘지’에는 계엄군의 총탄에 쓰러진 고(故) 양창근 열사가 잡들어 계셨다”며 “짓밟힌 조국의 정의를 누구보다 아파했을 그 오월의 소년은 등록신청을 대신할 직계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아직 5·18 민주유공자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국가폭력 희생자 한 분

한분의 가족이 되겠다”고 했다.

한편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시민들과 같은 출입구로 비표를 받고 입장했다. 정 대표는 기념식 전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후 기자들과 만나 “하늘에 뜻이 있다면 내란당의 ‘내란 공전’을 역사·헌법·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5·18 정신이 담긴 개헌안 투표가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된 데 대해 “광주 영령들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반면 오전 10시40분쯤 도착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측면에 별도로 마련된 통로를 통해 들어갔다. 일부 시민들은 입장하는 이들에게 “내란집단”, “집은 언제 파나, 집 팔고 와라”, “개X끼” 등 비판했지만,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장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입장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해 11월 당대표 취임 후 첫 호남 일정으로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 찾았으나, 지역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돌아간 바 있다.

장 대표는 기념식 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980년 광주의 5월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의 한 페이지”라며 “46년이 지난 지금 현주소에 탄식을 금할 길이 없다”고 썼다.

이어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5·18은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니라 권력 확장 도구다. 정작 5·18 정신을 무너뜨리는 자들”이라며 “자유민주주의의 파괴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예진 기자·박경수 인터넷기자 syj@metroseoul.co.kr

한미 정상 30분 통화... “동맹 흔들림 없다”

이 대통령, 트럼프와 직접 통화

“인태 지역과 세계 평화·번영 기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0분간 전화 통화를 가졌다. 한미 정상간 통화는 중동의 불안정한 상황과 미중 간 만남 등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17일 밤 10시부터 30여분간 이 대통령이 대통령 관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 미중 정상회담 결과 및 한미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 통화는 미중 정상회담 결과 공유 등을 위해 우리 측이 미국 측에 요청

해 이뤄졌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 방중 이틀 만에 성사된 한미 정상 간 통화라는 점에서 한미 간 공조가 흔들림 없음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중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데 대해 축하를 전하고 “미중관계의 안정적인 관리가 인태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미중관계 전반과 경제·무역 합의, 한반도와 중동 정세 등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이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양 정상은 지난해 발표한 공동선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JFS)에 대해 한미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한 역사적 합의라는 점을 상기

하고 ‘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중순으로 예정된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재회할 것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며 대화를 마무리했다.

한미 정상 간 세부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반도 문제는 주로 북한 관련 언급이 오고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스라엘 전쟁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를 언급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는 평가다. 북중러 밀착 분위기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중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나눈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논의를 이 대통령에게 공유했을 가능성도 있다.

또 중동 전쟁 상황에 대해서 논의한 것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뉴스시

도 눈에 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측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요구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관련 입장 및 호르무즈

항행 자유 보장 기여 방안 등을 언급했을 지 주목된다.

아울러 JFS 합의 이행을 노력하기로 한 점도 앞으로 양국의 통상·안보 협력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향후 대미투자 이행이나 핵추진잠수함 문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이 탄력을 받아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30분 남짓한 이번 통화에서 깊이 있는 논의는 못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그럼에도 내달 중순 G7에서 한미 정상 간 조우가 예상되므로, 다음 만남에서 논의를 쉽게 풀어갈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기대가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동맹국 정상들에게 그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약 15분 간 통화를 갖고 방중 성과를 공유한 바 있다.

/서예진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안성 만들겠다”

6.3 지방선거 청년 출마자를 만나다

① 양승진 민주당 안성시의원 후보

10월 아이 출산 앞둔 예비 아빠 시민 가까이서 ‘생활정치’ 다짐 초등 방과 후 돌봄 확대 등 공약

양승진 민주당 안성시의원 후보(경기 안성시 가선거구 1-나번·1992년생)는 오는 10월이면 한 아이의 아빠가 되는 ‘예비 아빠’다.

양 후보는 “(경기 안성시) 공도·양성·원곡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생활 속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해결하는 생활정치를 하고 싶어 출마했다”며 “현재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고 있는 예비 아빠로서, 아이 키우기 좋은 안성, 청년이 머물

고 어른이 편안한 도시를 만드는 데 책임감을 갖고 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양 후보는 정당 활동을 하며 지역 활동과 봉사를 꾸준히 해왔고, 시민들과 소통을 이어왔다고 자신했다. 이를 지켜본 김보라 안성시장 후보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양 후보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회와 안성에 대해 관심갖고 준비해 온 후보”라고 평했다. 양 후보자의 아버지는 현역 경기도의원인 양윤석 도의원이다.

양 후보는 “정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바꾸는 가장 현실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왔다”며 “그래서 지역 활동과 봉사, 시민들과의 소통을 꾸준히 이어오며 안성의 다양한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배우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젊은 나이에 공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역시 보여주거시기 정치보다 현장에서 책임감 있게 움직이며 꾸준히 준비해 온 진정

성을 좋게 봐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들께 실력과 행동으로 증명하겠다”고 부연했다.

양 후보는 지역에서 함께한 친구, 동료들이 더 좋은 환경을 찾아 안성을 떠나는 것을 보고 고민이 깊어졌다. 그는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머물고 싶은 안성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다”고도 했다.

양 후보는 “공도·양성·원곡은 안성의 미래 성장축이라 할 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교통·교육·생활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 특히 젊은 세대와 아이 키우는 가정의 요구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과 실행력을 가진 젊은 일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의 대표 공약도 ‘아이 키우기 좋은(경기) 서부권 조성’이다. 양 후보는 “저는 초등 방과후 돌봄 확대, 야간·주말 돌봄체



양승진 후보 프로필

경기 안성시 가선거구 1-나번, 1992년생
현)더불어민주당 안성 지역위 직능위원장
현)윤종균 국회의원

청년특보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성시협의회 자문위원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후보 안성시 MZ세대 부분부장
전)더불어민주당 안성지역위 대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특보
나에게 지방선거란? ‘미래의 책임’이다.

계 강화, 공공형 실내놀이공간과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아이와 부모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지역의 미래 경쟁력”이라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오는 6월 3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민을 위해 4년간 일 할 지역 일꾼들을 뽑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보통 지방선거는 지역에서 오랜 경험과 인맥을 갖춘 연륜 있는 후보가 공천받고 당선된다는 것이 정설이나 ‘올바른 정치가 지역을 바꿀 수 있다’는 일념 하나로 6·3 지선에 도전장을 낸 2030세대 후보자도 눈에 띈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이번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진보당의 청년 후보자들을 만나 그들이 바꾸고 싶은 것을 물어봤다. (편집자주)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웃음 가득할 사장님의 내일에 하나가 힘이 되어드릴게요

활기 넘치는 가게를
꿈꾸는 사장님을 위해
곁에서 든든히 함께하며

하나가 사장님의 내일에
힘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 개선 및 컨설팅 제공

공공배달앱 연계 소상공인 금융 지원

·공공배달앱(먹깨비) 이용 소상공인 보증한도 지원

소상공인 자금 유동성 확보 및 지원

·영세가맹점 매출대금 조기지급 프로그램 운영

설계사가 보험계약 갈아타기 유도... '부당승환' 주의보

7월 GA설계사 1200% 를 적용

금감원, 1분기 관련민원 54% ↑
해약환급금 손실 등 불이익 우려
고능률 설계사 확보 경쟁 양상

오는 7월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 룰이 적용되는 가운데 보험계약 갈아타기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액 정착지원금과 환수 조건이 결합될 경우 일부 설계사가 단기 실적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보험 해지와 신규 가입을 권유할 유인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계약 부당승환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올해 1분기 금감원에 접수된 부당승환 관련 민원은 211건으로 직전 분기 137건 대비 54.0% 증가했다.

부당승환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면서 유사한 새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 계약을 체결한 뒤 기존 계약을 해지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다. 소비자 입장에서 '더 좋은 보험으로 갈아타라'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바꾸지만 실제로는 해약환급금 손실, 보장 공백, 면책기간 재적용, 보험료 상승 등의 불이익



Chat GPT가 생성한 보험 갈아타기 이미지.

을 입을 수 있다.

부당승환 우려가 커진 배경에는 GA 영업조직의 설계사 유치 경쟁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 판매수수료 체계를 선지급 중심에서 분급 중심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오는 7월부터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 룰을 확대 적용한다. 1200% 룰은 보험 판매 1차 연도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월남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제도 개편 이후에는 정착지원금과 시책 수수료 등도 수수료 한도 산정에 포함된다. 그동안 GA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

되는 고액 정착지원금이 설계사 이동과 신계약 경쟁을 자극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던 만큼, 당국은 수수료 규제 차익을 줄여 잦은 계약 갈아타기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고능률 설계사를 미리 확보하려는 경쟁이 막판 과열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착지원금이 설계사가 이직할 때 지급받는 지원금으로, 일정 기간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환수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다. 이때문에 일부 영업조직에서 단기 실적을 채우기 위해 기존 고객에게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소비자 피해는 주로 보장 공백에 서 나타난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 보험에 가입한 뒤 질병 진단을 받아도 신규 계약의 면책기간이 적용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장기간 유지한 보험을 해지하면 기존 계약의 예정이율이나 보장 조건을 잃을 수 있고, 나이가 오른 상태에서 재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높아지거나 같은 수준의 보장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1200% 룰 시행 전후로 설계사 이동과 판매채널 재편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부당승환 관리가 올해 보험사 내부통제의 주요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와 GA가 판매실적보다 계약 유지율과 소비자보호를 중시하는 영업관리 체계를 갖추지 못할 경우 막판 영업 경쟁의 청구서는 소비자 피해와 제재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다.

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협회장은 "1200% 룰을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하려면 전산관리 표준모델 수립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며 "보험사의 지원 체계와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NH농협은행

중소·중견사 세무지원 'NH원클릭 세무' 오픈

NH농협은행은 중소기업에 최적화된 맞춤형 세무 지원을 위한 'NH원클릭 세무'를 오픈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제공 서비스는 ▲고용지원금 조회 및 신청 ▲법인세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최근 5년간 납부한 양도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의 진단 및 환급 신청 등이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복잡한 세무 업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고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우리금융

포용금융 주요성과 점검 첨단전략산업금융협의회

우리금융은 '첨단전략산업금융협의회'를 개최하고 그룹 포용금융 주요 성과와 향후 실행 과제를 집중 점검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5일 서울 중구 우리금융그룹 본사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자회사 CEO 및 지주 부문장 등 19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활자금 및 자립 기반 지원, 포용금융을 통한 금융 안전망 확대 등 청년과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한 금융지원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임종룡 회장은 "청년은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세대로, 희망을 잃지 않도록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이어가야 한다"라며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지원 역시 금융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금융 안전망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금융당국, 대부업체 새도약기금 참여 인센티브 검토

업계, 새도약기금 참여 절반수준 대부업 매입대상 채권규모 4.9조 자금 장기분할 상환 전환 등 거론

민간 배드뱅크 '상륙수' 장기 연체 채권 추심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대부업계의 새도약기금 미참여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부업계는 새도약기금 참여 시 업계 수익성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한편, 금융당국은 대부업 참여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새도약기금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업계는 상위 30개 곳 중 15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이후 새도약기금이 운영된 지 반년이 넘었으나 상위 대부업의 참여율은 여전히 절반 수준에 그쳤다.

새도약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공적 배드뱅크다. 금융권이 보유하고 있는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연체 채권을 매입한다.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간 채권은 즉시 추심이 중단되며, 소각되거나 채무 조정된다.

대부업의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 장기 연체 채권 규모는 약 4조9000억원이다. 상위 30개사가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대상 채권(16조4000억원)의 약 30%다. 장기 연체 채권이 30개 대부업체에 고르게 분산돼 있다고 가정하면, 미참여 대부업권이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은 약 2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대부업계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하지 않는 배경에는 '매입가율' 문제가 있다. 새도약기금의 장기 연체 채권 매입가율이 대부업권의 기존 연체채권 매입가

율을 크게 밑돌고 있어서다.

새도약기금을 운영하는 캠코는 장기 연체 채권을 미상환 원금잔액의 5% 수준에서 사들인다. 반면, 대부업계는 금융사를 통해 이를 20~30% 수준에서 매입한 뒤, 추심 업무를 진행해 수익을 낸다. 업계는 비싸게 사들인 연체채권을 약 5%로 새도약기금에 다시 넘기면 수익 구조에 손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대부업권의 새도약기금 참여 확대를 위해 유인책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계를 소집해 장기 연체 채권 상환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핵심은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캐피탈사 등에서 빌린 자금의 상환 방식을 장기 분할 상환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대부업체는 수신 기능이 없어 저축은행과 캐피탈

사에서 자금을 조달해 연체채권을 매입한다. 이 과정에서 매입한 채권을 담보로 제공한다.

문제는 새도약기금에 부실채권을 매각할 경우 담보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이 경우 저축은행·캐피탈사가 대부업체에 대출금의 일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데, 당국은 이 같은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외에도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매입 채권추심업자에게 확대하는 방안이 함께 거론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미 대부회사의 채권 매각을 독려하기 위해 새도약기금 가입 대부업체에 대해 은행권 차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 연체채권 매입 펀드 대상 채권 인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해 왔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경기·인천 등 규제 빚겨간 아파트, 거래량 33% '급증'

구리시 4월 누적 거래량 3배 상승 인창·수택·교문동 등 고르게 확대

올해 들어 구리 아파트 거래가 급증하는 등 규제 지역 지정을 피한 경기·인천 부동산이 들쭉이고 있다.

18일 직방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경기·인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6만629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2.5% 증가했다.

경기도에서는 구리시의 거래량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구리 거래량은 1708건으로 전년 동기 468건에서 3배 이상 급증했다. 동별로는 인창동이 778건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수택동 385건

▲교문동 253건 ▲갈매동 206건 등 모든 동에서 고르게 거래가 확대됐다. 인창동은 동구릉역, 구리역이 위치해 있어 서울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고, 역 인근으로 대단지들이 포진해 있어 실수요와 함께 투자수요도 유입했던 것으로 보인다.

직방 관계자는 "광역교통 접근성과 함께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양상"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목적의 매수만 가능한 만큼 즉시 입주자 어려운 수요자들이 비규제지역이나 상대적으로 진입 부담이 낮은 인접 지역으로 관심을 돌리는 흐름도 일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을 통

해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광명·과천·분당 등 12개 지역을 올해 말까지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안양시 만안구(+92%) 등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동탄과 기흥은 올해 들어 지난해까지 각각 3625건, 1429건 거래되며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직방 관계자는 "동탄은 GTX와 SRT 등 광역교통망을 기반으로 한 신도시 수요가 이어졌고, 기흥구는 서울 접근성 개선과 함께 인근 반도체 산업단지 및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기대감에 따른 직주근접 수요 영향도 일부 반영됐다"고 해석했다.

반면 경기도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성남시 분당구와 과천시 같은 기간 거래량이 각각 30%, 77% 감소했다. 분당구는 1274건, 과천시는 86건 거래되는데 그쳤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실거주 목적의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하며, 대출 규제 등으로 자금 조달 부담도 크다. 인천에서는 서구와 부평구가 각각 34% 늘었고, 연수구도 24% 증가하며 3개구가 거래를 주도했다.

직방 관계자는 "최근 임대차시장 불안 등으로 일부 전월세 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강화된 대출 규제도 자금 조달 문턱이 높아지면서 수요자들은 자신의 자금 여건과 실거주 조건에 맞는 지역을 선택적으로 찾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새마을금고

창립 63주년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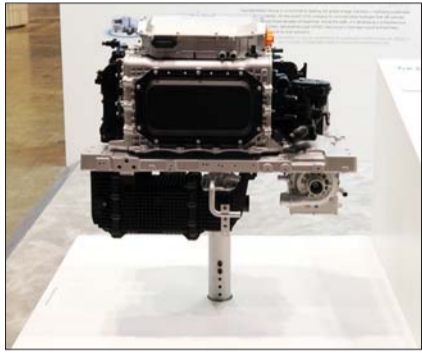
새마을금고는 이달 25일까지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새마을금고 창립 63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참여자는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통한 본인인증 후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1일 1회 참여할 수 있으며, 이벤트 기간 매일 새로운 문제가 출제된다. 이벤트 참여 고객을 위한 경품도 준비했다. 경품은 ▲메가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배달의 민족 상품권 2만원권 ▲신세계 상품권 3만원권 ▲새마을금고 굿즈 세트 등이다. /안재선 기자



현대차그룹, 글로벌 수소사업 박차 홍콩 ‘자원순환형 생태계’ 만든다

홍콩 ‘수소 생태계 조성’ 업무협약
수소 인프라 기반 에너지 자립 지원
현지여건 반영 모빌리티 공급 추진



현대차그룹이 18일 홍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제 수소 개발 심포지엄 2026’에서 공개한 수소연료전기시스템.

현대자동차그룹이 전 세계적으로 수소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거점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을 시작으로 미국과 중국, 싱가포르에 이어 이번엔 홍콩에 수소 밸류체인을 구축한다.

현대차그룹은 18일 ‘국제 수소 개발 심포지엄 2026’이 열리는 홍콩 컨벤션센터에서 현대차와 현대건설이 참여하는 ‘홍콩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는 현대차와 현대건설, 제아이엔지 등 한국 기업 3개사를 포함해 홍콩중화가스, 비올리아, 중국검험인증그룹, 귀푸수소에너지 등 총 10개 기업이 참가했다. 이에 따라 10개사는 현지에서 친환경 수소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수소 충전, 수소 모빌리티 보급까지 연계하는 수소 인프라를 구축해 홍콩의 에너지 자립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매립지 가스를 활용해 저탄소 수소 에너지를 생산하는 ‘자원순환

형 수소 생산 모델(W2H)’을 홍콩에 도입한다.

아울러 교통 수요가 밀집한 주요 거점에는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을 추진한다. 액화수소충전소는 기체수소충전소보다 단위 부피당 저장할 수 있는 수소의 양이 많아 가용 용지가 제한적인 홍콩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와 함께 현지 운행 여건을 반영한 수소 모빌리티 공급도 추진한다. 현대차는 수소의 생산 및 활용, 수소충전소 건립 등 홍콩 수소 생태계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수소 모빌리티를 보급한다.

현대건설은 W2H 시설 설계 및 구축을

담당한다. 국내 수소 EPC(설계·조달·시공) 전문 기업 제아이엔지는 수소충전소 설계 및 구축을 맡는다.

현대차그룹은 수소 기술 역량과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홍콩 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홍콩은 지리적 특성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 자력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8.7%에 달한다. 홍콩 정부는 2024년 수소 로드맵을 새롭게 정의하고 수소 상용차 및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뉴 에너지 트랜스포트 펀드’를 조성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수소 밸류체인을 생산·운반·충전·활용까지 아우르는 전반적 확장 전략을 내세우며, 중국·인도네시아·미국·싱가포르에서 각각 생산기지·생태계·물류·상용 모빌리티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W2H(자원순환형 수소) 실증을 통해 현지 생산 거점을 만들고, 미국은 수소전기트럭 기반 물류 밸류체인 구축을, 싱가포르는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확장에 집중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메르세데스-벤츠 스튜디오 서울 전경.

/벤츠 코리아

벤츠, ‘스튜디오 서울’ 오픈

전 세계 다섯번째 스튜디오
“韓 시장 중요… 고객 점점 확대”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시장이며 고객과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 가겠다.”(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이사)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브랜드 프리미엄 가치 전달과 국내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한 전시 공간을 구축한다.

기존 수입차 업체들이 다양한 에디션을 출시하고 단계적 체임 부스 운영을 통한 판매량을 확대하기 위한 모습과는 상반된다. 메르세데스-벤츠는 브랜드 탄생부터 140여년간 이어온 헤리티지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메르세데스-벤츠 서울 스튜디오’를 19일 서울 성수동에 오픈했다.

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이사는 “벤츠 스튜디오 서울을 통해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고객과의 접점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은 전 세계 다섯 번째로 벤츠 스튜디오를 오픈한 도시로 세계 주요 도시 18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글로벌 시장 내 한국의 중요성과 브랜드 영향력을 반영했으며, 도시 선정 과정에서는 각 도

시의 문화적 영향력 및 고유한 정체성, 브랜드와의 연결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우선 전체적인 외관 디자인은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만하임에 위치한 칼 벤츠의 공장을 연상케한다. 실내 공간은 메르세데스-벤츠의 웰컴 콘셉트를 바탕으로 조성돼 부담없이 브랜드와 교감하고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전시 공간의 시작은 메르세데스-벤츠의 시작을 이끈 칼 벤츠의 작업실을 재현한 공간으로 브랜드의 기원과 모빌리티의 출발점을 경험할 수 있는 ‘The Origin’이 있다. 이어 두번째 전시 공간은 벤츠 브랜드를 사랑한 시대별 아이콘들과 함께 브랜드의 문화적 영향력을 조명하는 ‘The Icon’을 경험할 수 있다. 이어 벤츠가 140년간 이어온 혁신과 기술 진화를 집약한 디지털 아카이브 공간인 ‘The Best or Nothing’을 마주한다. 마지막으로 벤츠가 그리는 미래 방향성을 담은 차세대 운영체제 MB.OS 체험 공간인 ‘The Senses’에서 기술을 직접 느낄 수 있다. 이와 함께 라운지 공간에서는 신차를 포함한 벤츠 코리아의 다양한 차량 라인업도 만나볼 수 있다.

벤츠 스튜디오 서울은 일반 고객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으며, 전시 관람은 네이버 방문예약 페이지를 통해 예약 가능하다.

/양성운 기자 ysw@

북미 강관가격 하락… 국내업체, 1분기 수익성 ‘적신호’

세아제강지주·휴스틸 등 실적 부진

북미 에너지용 강관 시장의 가격 하락이 이어지면서 국내 강관업체들의 수익성 부담이 커지고 있다. 당장은 북미 유통용강관(OCTG) 시장의 판가 하락이 실적을 압박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셰일 산업의 효율화와 LNG 인프라 확대가 맞물리며 시추용 강관과 파이프라인용 강관의 수요 흐름이 엇갈릴 전망이다.

18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강관업체들의 올해 1분기 수익성은 전반적으로 둔화됐다. 세아제강지주는 매출 991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267억원으로 59.0%, 당기순이익은 82억원으로 86.2% 줄었다. 휴스틸은 매출 1479억원으로 3.9% 감소하고 영업손실 52억원을 냈으며, 넥스틸은 매출 1006억원, 영업이익 26억7000만원으로 각각 35.8%, 88.4% 감소했다.

국내 강관사들의 부진은 북미 판매 환경 악화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세아제강지주는 1분기 미국 에너지용 강관 수요가 전년 대비 12.6% 줄고, 북미 OCTG

시장 경쟁 심화로 판가가 하락한 점이 실적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실제 연초 북미 OCTG 가격은 한 달 새 톤당 약 100달러 하락했다.

문제는 향후 OCTG의 중장기 수요 전망 역시 장기적인 구조 변화로 인해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이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미국 본토 48개 주의 월평균 석유·가스 시추 장비 수는 지난 2022년 12월 750대에서 지난해 10월 517대로 줄었다. 지난 15일 기준 주간 시추 장비 수는 551개로 4주 연속 반등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여전히 약 4% 낮아 장기적인 감소 흐름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시추 장비 감소에도 생산량은 늘고 있다. 미국 본토 원유 생산량은 지난해 7월 하루 1140만 배럴, 천연가스 생산량은 지난해 8월 하루 1172억 입방피트로 각각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평 시추 확대와 완공 기술 개선으로 적은 장비로 생산을 유지하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최대 셰일 요충지인 페르미안 분지는 지난해 12월 이후 시추 장비가 29% 줄었지만 생산량은 18% 증가했다. 여기에 미완결 유정(DUC)도

다수 남아 있어 신규 케이싱 파이프 수요는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가스 파이프라인용 강관 시장은 다른 흐름이다. LNG 수출 확대에 따른 북미 이송 인프라 투자 수요가 커지고 있어서다.

시장조사기관 GMK센터에 따르면 2026~2027년 텍사스·루이지애나·오克拉호마 등 미국 남부 지역의 신규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승인 건수가 18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블룸버그도 이 지역의 신규 건설·기존 설비 확장 프로젝트가 최대 12건 계획돼 있다고 전했다.

이재운 철강산업연구원은 “OCTG의 경우 최근 미국 현지 투자가 진행되면서 자금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큰 데다 신규 수요마저 제한적이어서 가격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이고, 결국 관세 부담을 상쇄할 수준의 마진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반면 LNG 파이프라인용 강관은 지정학적 변수와 전쟁 리스크, 미드스트림 인프라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맞물리고 있어 향후 확실한 수요 확대와 가격 회복을 기대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

LG전자 “폐배터리 반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내달 30일까지 ‘배터리턴’ 캠페인

LG전자가 청소기 폐배터리를 수거해 회유금속으로 재활용하고, 이를 사회공헌 활동으로까지 연결하는 고객 참여형 자원순환 캠페인 ‘배터리턴’을 통해 ESG 경영 강화에 나섰다.

LG전자는 기후환경에너지부의 후원 아래, 한국환경공단 및 E-순환거버넌스와 공동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고객 참여형 자원순환 캠페인 ‘배터리턴’을 전개한다고 18일 밝혔다.

LG전자의 배터리턴은 다 쓴 청소기 폐배터리를 반납하는 고객에게 새 배터

리 구매 시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자원순환 프로젝트다.

올해 캠페인은 더 많은 고객이 자원순환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인 혜택을 키웠다. 전국 LG전자 서비스센터를 직접 방문해 제조사와 관계없이 다 쓴 청소기 폐배터리를 반납하면 새 무선스틱 청소기 배터리 구매 시 지난해(3만 원)보다 늘어난 4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SK온, 배터리 부문 연간적자 1.5조 전망

ESS·LFP 배터리 돌파구 모색

올해도 배터리 3사 가운데 SK온의 수익성 회복은 상대적으로 더딜 것으로 보인다. 북미 생산라인 확대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 이어지는 데다 전기차 수요 회복 속도도 빠르지 않아 연간 1조원대 적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에너지저장장치(ESS)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미 경쟁이 치열한 시장인 만큼 의미 있는 수주 확대와 안정적인 양산 성과가 확인돼야 실적 개선 기대도 커질 전망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SK온은 올해에도 적자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가에서는 SK온의 2026년 배터리 부문 영업손실이 약 1조495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를 제외하면 영업손실 규모는 1조9000억원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1분기 실적에서도 수익성 부담은 확인됐다. SK온의 1분기 매출은 1조791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했지만 영업손실은 3492억원으로 499억원 확대됐다. 유럽과 아시아 판매가 일부 회복됐

음에도 북미 생산라인 가동률 부진과 고정비 영향이 적자 폭을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북미 생산라인의 활용도를 끌어올릴 만한 수요 회복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SK온은 미국 조지아 공장을 비롯해 현대차·포드와의 북미 배터리 생산 거점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완성차 업체들의 전동화 전략 조정과 전기차 수요 회복 지연이 맞물리면서 신규 생산라인의 가동률 정상화는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SK온은 수요 회복이 더딘 전기차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ESS를 활용한 생산라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기차 중심 생산 체계를 일부 조정해 ESS와 LFP 배터리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히려는 것이다. 미국 조지아 공장 일부 생산라인을 ESS용 LFP 배터리 생산 체제로 전환하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SK온은 북미 생산라인 가동률 회복과 ESS·LFP 전환 성과를 동시에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단기적으로는 흑자 전환보다 적자 폭 축소와 신규 수주, 양산 안정화 여부가 실적 개선의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중소, 대기업과 AI 활용 격차 11배... 'AX 중요' 인식도 낮아

중기중앙회, AX 확산정책 토론회
제조업 AI 활용률 2.5% 그쳐
수도권·비수도권 도입 격차 3.4배
64% "스마트제조혁신 안 중요해"
스마트공장 보급 넘어 AX 혁신 과제
"업종 단위 공동형 접근 효과적"

제조 중소기업들의 인공지능(AI) 전환(AX)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대·중소기업간 AI 활용 격차가 최근 6년간 11배까지 벌어졌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2.5%)의 AI 활용률은 서비스업(6.8%)보다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같은 제조 중소기업이라도 수도권(6.1%)과 비수도권(1.8%)의 AI 도입률 격차는 3.4배까지 벌어졌다. 게다가 제조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은 스마트제조혁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등 AX(인공지능 전환)가 여전히 갈 길이 먼 모습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18일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신 성장동력, AI 전환(AX) 확산정책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김주미 수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신 성장동력, AI 전환(AX) 확산정책 토론회'에서 (앞줄 왼쪽 4번째부터)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진병채 카이스트 교수, 이영환 고려대 디지털혁신연구센터장, 양찬희 중기중앙회 전무 등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석연구위원이 발표한 '중소 제조기업 맞춤형 AX 정책방향'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23년 현재 기업 규모별 AI 활용률은 대기업이 1.0%에서 13.5%로 크게 늘었지만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0.25에서 4.5% 증가하는데 그쳤다. 대·중소기업간 AI 활용률 격차는 이 기간 0.8%포인트(p)에서 9.0%p로 11배가량 차이가 났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도권 기업과 비수도권 기업간 격차도 심화됐다.

이 기간 AI 활용률은 서비스업이 0.3

→6.8%, 제조업이 0.2→2.5%로 각각 늘면서 제조업이 한참 뒤쳐진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0.3→6.1%, 비수도권 기업은 0.1→1.8%로 지역간 격차도 3.4배나 벌어졌다.

김주미 수석연구위원은 "중소기업들의 스마트공장 도입률은 19.8%로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며 구축 수준도 73.8%가 '기초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제조데이터 수집 방법은 3.9%만 '실시간 자동 수집'을 할 뿐 대부분은 '수동 입력' 중심이었고, 수집을 하지 않는

기업도 21.5%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이사장을 맡고 있는 동아플레이팅 이오선 대표는 "중소기업 현장에선 직접 경험, 수작업 중심의 업무 방식에 익숙해 디지털, AI 전환에 대한 심리적 저항이 존재한다. 또 AI가 직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불안감도 있어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면서 "AX는 효과가 누적적·간접적으로 나타나는 등 도입 효과를 사전에 정량화하기 어려워 투자 결정도 쉽지 않다"고 토론했다.

이날 또다른 발제자로 나선 고려대 이영환 디지털혁신연구센터장은 AX 우수 사례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 AX 확산에 필요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부문별 중간 조직을 활용한 지원정책을 제언했다. 또한 ▲업종별 공동 수요 집적 ▲공동실증 ▲표준 AX 모델 구축 ▲업종 단위 확산으로 구성되는 AX 확산구조를 제시하며, AX 플랫폼으로서 업종별 협·단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중기중앙회 오기웅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에서도 AI 전환이 업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필요할 때"라면서 "업종마다 생산 데이터 등이 다르기 때문에 업종 단위의 공동형 접근이 개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AX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협동조합 중심의 업종별 AX 확산체계 구축 ▲현장 중심의 AX 역량 강화 교육 지원 확대 ▲AX위한 솔루션 구축·운영비용(OPEX)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韓 전력설비, 북미 AI 데이터센터 시장 본격 공략

LS일렉트릭, 1050억 배전기기 공급
가온전선, 버스덕트 장기계약 확보
HD현대마린솔루션, 엔진 AM 진출

북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시장에서 국내 전력설비 기업들의 수요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데이터센터 증설 수요 급증에 따라 LS일렉트릭은 배전기기, 가온전선은 버스덕트, HD현대마린솔루션은 발전엔진 유지·보수 분야에서 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LS일렉트릭은 미국 현지 빅테크 기업의 대형 데이터센터에 적용될 약 7000만달러(약 1050억원) 규모의 배전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LS일렉트릭은 데이터센터 핵심 전력 계통망에 진공차단기(VCB) 등 하이엔드 전력기기를 공급한다.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서버가 24시간 가동되는 만



HD현대마린솔루션은 최근 미국 에너지 인프라 개발 기업 AEG(Aperion Energy Group)와 데이터센터 전력용 엔진 유지·보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HD현대

큼 전력 공급 안정성이 서비스 연속성과 직결된다. 짧은 전력 차질도 데이터 손실과 서비스 장애로 이어질 수 있어 전력기기의 신뢰성, 운용 실적, 납기 대응 능력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 LS일렉트릭은 이번 수주를 통해 북미 데이터

센터 배전 인프라 시장에서 기술력과 품질, 프로젝트 수행 역량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온전선도 대용량 전력 공급 설비 수요에 대응하는 장기계약을 확보했다. 미국 자회사 LSCUS는 이날 미국 빅테크 기업 A사와 향후 5년간 버스덕트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약 500억원 규모 공급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미국 내 AI 데이터센터 수십 곳에 버스덕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누적 공급 규모는 최대 4조원 이상에 이를 전망이다.

버스덕트는 대규모 전력을 데이터센터 내부에 안정적으로 배분하는 설비다.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대용량 전력 공급 시스템 수요도 함께 커지고 있다.

LS일렉트릭과 가온전선이 전력 설비 공급 계약을 확보한 데 이어 발전설비

유지·보수 분야에서는 HD현대마린솔루션이 북미 시장 접점을 넓히고 있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미국 에너지 인프라 개발 기업 AEG와 데이터센터 전력용 엔진 유지·보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사는 AEG가 미국 텍사스주에 건립 중인 데이터센터에 투입되는 전력용 엔진 33기에 대해 장기 유지·보수와 운영 협력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은 HD현대중공업이 지난 4월 체결한 데이터센터 전력용 발전설비 공급 계약의 후속 단계이다. HD현대중공업은 당시 20MW급 힘센(HiMSE N) 엔진 기반 684MW 규모의 발전설비를 공급하기로 했으며 HD현대마린솔루션은 엔진 납품 이후 유지·보수 서비스를 맡는다.

/원관희 기자 wkh@

중기부, '모두의 챌린지' 뷰티·플랫폼 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가 19일부터 모두의 챌린지 내 '뷰티'와 '플랫폼' 분야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18일 중기부에 따르면 모두의 챌린지는 전략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과 분야별 선도기관 간 기술실증(PoC), 판로 확보 등 개방형 혁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AX(인공지능 전환), 방산, 로봇 등 9개 분야별로 진행 중이다.

뷰티 분야는 화장품의 대기업 인프라 및 데이터와 창업기업의 인공지능 기술력을 결합해 해외 시장 내 K-뷰티 경쟁력을 강화하고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내달 8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아모레·LG생건·한국콜마 참여
카카오모빌리티·카뱅·토스 협업

수요기업으로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한국콜마 등 3개 대기업이 참여한다. 이들은 뷰티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제품·서비스 혁신 및 고객 경험 고도화 등을 위한 협업을 추진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15개사에는 최대 1억원의 협업 자금과 대기업 해외 유통망과 마케팅 채널을 통한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플랫폼 분야는 기업의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와 서비스 인프라, 창업기업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영 등을 돕고,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촉진한다. 수요기업으로는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뱅크, 토스 등 3개 대기업이 나섰다.

선정된 10개사에는 소상공인 경영 전반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솔루션(지원체계) 개발과 최대 1억원의 협업 자금이 주어진다.

/김승호 기자

기보, 회생기업 재기·부산 中企 M&A 지원

서울회생법원과 재기지원 협약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연계

기술보증기금이 회생기업들의 재기 지원을 강화한다.

부산지역 기술 중소기업을 위해 인수 합병(M&A)도 지원한다.

기보는 서울회생법원과 '회생기업의 성공적인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은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회생기업을 발굴하고 금융지원을 연계해 회생기업이 안정적인 재기 기반을 마련하고 신속히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

차 진행 중인 기업 가운데 재기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기보에 추천하고, 기보는 추천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등 금융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회생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와 홍보에도 협력해 원활한 재기를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기보가 운영 중인 재도전 재기지원 보증은 기술력이 우수한 실패기업인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특별보증 제도다. 회생절차 진행기업이 절차를 조기 종결하고,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계획을 1회 이상 이행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기술평가와 심사를 거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승호 기자

벤처협회, 벤처코칭멘토 인증 2기 모집

국내 첫 벤처 특화 인증과정
내달 10일까지 참가자 모집

벤처기업협회가 국내 최초의 벤처 특화 코칭멘토 인증제도인 'KVMCC(K-VentureMentor-Coach Certification) 2기 인증과정' 참가자를 모집한다.

18일 벤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개강한 1기에선 총 25인의 정식 벤처코칭멘토(VMC)를 배출했으며, 이번 2기는 약 50명 규모로 확대 운영한다. 모집은 오는 6월 10일까지다.

KVMCC는 벤처협회, 한국코치협회, 초기투자엑셀러레이터협회가 공동 설계한 인증 체계로, 코칭 역량과 벤처 현장 경험을 함께 갖춘 '코칭형 멘토'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단순 조언을 넘어 창업가가 스스로 답을 찾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성장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벤처협회는 KVMCC를 통해 국내에서도 지속가능한 검증된 멘토 공급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2기 모집은 서류심사를 통해 50명 가량의 교육생을 선발한다. 이후 필기·실기·면접으로 구성된 3단계 인증 심사를 거쳐 최종 25인 내외의 정식 벤처코칭멘토(VMC)를 배출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KAC 이상 전문코치 ▲산업 분야 15년 이상 경력 전문가 ▲창업·벤처투자 유경험자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김승호 기자

NARA CELLAR

역시! 몬테스



결국! 몬테스



**2025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와인 부문 2년 연속 1위**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LGU+, 유심 교체 200만건 기록... 연말까지 무상제공

알뜰폰 포함 전 고객 대상 목표
eSIM에 난수화된 IMSI 체계 적용
내년 7월 ISMS-P 인증 의무화

LG유플러스가 유심(USIM) 무료 교체 지원을 연말까지 이어간다. 통신업계의 잇따른 해킹 등 보안사고로 소비자들의 불안심리가 확산된 여파로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의 유심 교체 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18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4월 중순부터 약 한 달 간 유심 업데이트 및 무료 교체 건수가 200만건을 넘어섰다. 당시 회사는 유심 칩 안에 등록하는 가입자 식별번호(IMSI)의 설계 방식에 보안상 취약점을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무료 교체를 추진했다. 15자리 숫자로 구성된 IMSI는 이동통신사가 사용자를 식별하는데 쓰



LG유플러스가 유심(USIM) 무료 교체 지원을 연말까지 이어간다.

/췧GPT

는 번호다.

보안상 지목된 문제 요인은 난수 번호다. 이는 무작위로 추출한 숫자 조합으로, 해킹이나 도용 방지에 유리하다. 당시

가입자의 실제 휴대전화 번호 일부를 IMSI 발급에 활용한 것이 밝혀지면서 보안 우려가 제기됐다.

회사 측은 "올해 4월부터 발급한 이심

(eSIM) 등 전 매체는 난수화된 IMSI를 적용했다"며 "연말까지 알뜰폰을 포함한 전 고객을 대상으로 무상 제공이 목표"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유심 교체 누적 처리율은 12% 수준이다.

교체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다. 타인의 유심 정보를 복제한 뒤 문자 인증을 가로채 금융 계정을 탈취하는 '심스와핑' 등 해외 범죄 사례가 속속 공개되면서다. 다만 유심 내 핵심 암호화 비밀키인 '키값'에 의해 난수 번호를 뚫고 곧바로 해킹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심은 가입자 식별 정보와 금융 플랫폼 보안 확인에 활용하는 인증 정보가 들어있어 보안문제와 직결된다. 가입자들은 각 통신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유심보호 서비스'를 이용해 외부에서 유심 재발급을 위해 시도하는 접촉을 차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요구하는 보안 기준

이 엄격해진다. 내년 7월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기업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이 의무화된다. 이는 해킹 대응 체계와 개인 정보 암호화, 사고 대응 프로세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인증이다. 지난해 SK텔레콤의 대규모 해킹 사고 이후 기업의 보안 체계를 상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취지로 신설됐다.

국내 이동 통신사의 가입자 식별 체계 보안도 강화된다. 연내 상용화를 앞둔 5G SA 환경에서는 모든 단말기에 암호화한 가입자 식별값(SUCI)을 권장한다. 기존 IMSI 식별값보다 외부 노출 가능성을 낮춰 보안 강도를 높인 체계다.

한편, LG유플러스 유심 업데이트 및 교체는 공식 앱 또는 전국 매장에서 가능하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metro

LG CNS, 컬리와 스마트 물류 고도화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 검토
입고·출고 등 전 과정 효율화

LG CNS가 로봇을 활용한 물류 혁신에 나선다. 컬리 물류센터에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을 검토하고, 로봇 운영 플랫폼 '피지컬웍스'도 현장에 적용한다.

LG CNS는 컬리와 물류 자동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휴머노이드 로봇 현장 적용성 검증 ▲물류 자동화 솔루션 개발 ▲신규 사업 기회 발굴 등을 추진한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념검증(PoC)을 거쳐 작업자 업무 부담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물류 업무를 발굴할 예정이다.

LG CNS가 최근 선보인 '피지컬웍스'도 현장 적용성을 검토한다. 로봇의 작업 정확도와 수행 속도, 효율 개선 수준 등을 분석한다.

자동화 설비와 물류 운영 시스템을 통합해 입고·보관·피킹·출고 등 전 과정도



박상균 LG CNS 통신유통서비스사업부장(전무, 왼쪽 여섯번째)과 이준호 스마트물류&시티사업부장(전무, 왼쪽 다섯번째)가 컬리 COO 허태영 부사장(왼쪽 네번째) 등 경영진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LG CNS

효율화한다.

앞서 김포·창원 물류센터 구축 사업을 수행하면서 셋백 배송을 위한 물류 노하우를 확보했다. 상온·냉장·냉동 환경을 한 곳에서 운영하는 기술도 구현할 수 있다.

컬리의 최고운영책임자(COO)인 허태영 부사장은 "LG CNS의 첨단 피지컬 AI 기술력과 현장 데이터를 연결해 물류

현장의 혁신을 이뤄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LG CNS 통신·유통·서비스사업부장 박상균 전무는 "컬리가 보유한 물류 노하우와 LG CNS의 기술 역량이 결합돼 물류 자동화 분야에서의 의미있는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민선 기자

SK텔링크, 대형 선사에 스타링크 도입

통합 솔루션 모델 통해 차별화

SK텔링크는 국내 대형 선사에 '스타링크' 서비스를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서비스 공급 대상은 HMM, 팬오션, 에이치라인해운, SK해운, KSS해운 등 대형 선사다. 회사 측은 운영 선단 전체를 대상으로 체결된 이번 계약을 통해 보수적으로 평가받는 해운업계에서 신뢰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통합 솔루션 모델을 통해 차별화했다. 스타링크 저궤도 위성은 기존 정지궤도 대비 약 10분의 1 수준의 지연과 250 Mbps급 속도를 제공한다. 또 통합위협관리(UTM)를 기반으로 사이버 보안 체계

를 통신망과 통합 설계해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 제공에 앞서 SK텔링크는 해운사의 보안 요구 사항을 인프라 설계 전 미리 반영하는 '선 컨설팅 통합 구축' 방식을 택했다. 계약 이전부터 선사의 운항 노선과 업무 특성을 분석해 상용 서비스 개시와 동시에 즉시 가동한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직접 보안업체와 접촉하지 않아도 된다.

해당 통합솔루션 모델은 조선, 해양플랜트, 국방 영역 등으로 확대한다. 또 SK그룹 정보통신기술(ICT) 관계사의 양자 암호 보안, AI 데이터 분석, CCTV 안전 관제 등 그룹 역량도 단계적으로 결합해 부가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조민선 기자

넷마블 '왕좌의 게임', 첫날 1.7만명 몰려

오는 21일 모바일 출시

넷마블의 신작 역할수행게임(RPG)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가 흥행에 시동을 걸었다. PC 플랫폼에 먼저 공개된 이 게임은 첫날부터 이용자가 대거 몰렸다. 오는 21일 모바일 출시를 앞두고 흥행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18일 글로벌 게임 통계 사이트 스타미터베이스에 따르면 이 게임은 출시 첫날 최고 동시접속자 수 1만7224명을 기록했다.

이용자 반응도 좋다. 세계 최대 게임 플랫폼 스팀에 등록된 리뷰 2000여 건 중 71%가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에미상과 골든글로브상을 수상한 HBO 드라마 '왕좌의 게임' 시즌4를 배경으로 개발된 오픈월드 액션 RPG다. 넷마블이 워너브라더스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산하 HBO의 공식 라이선스를 획득해 개발했다.

게임은 ▲왕좌의 게임 세계관을 활용한 서사 ▲오픈월드로 구현한 웨스트로스 ▲사실적인 액션 ▲원작 IP에서 영감을 받은 3개의 클래스(기사·용병·암살자) 등을 핵심 게임성으로 내세웠다.

현재 넷마블 런처와 스팀, 에픽게임즈



넷마블의 RPG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이미지.

/넷마블

스토어 등 PC 플랫폼을 통해 먼저 서비스되고 있으며, 오는 21일 오전 10시 애플 앱스토어·구글 플레이·구글 플레이 게임을 통해 모바일 버전이 그랜드 론칭된다. 모든 플랫폼 계정은 상호 연동된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넷마블의 2분기 실적 모멘텀을 이끌 핵심 타이틀이 기도 하다.

넷마블은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 6517억원, 영업이익 53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5%, 영업이익은 6.8%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109억원으로 163% 늘었다.

넷마블은 2분기에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에 이어 6월 '솔: 인첸트'를 잇따라 선보이며 신작 모멘텀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넥슨 계정, 네이버 로그인으로 전환 가능

기존 게임 플레이 기록 등 유지

네이버와 넥슨이 계정·결제 데이터를 연동해 게임 이용자 대상 개인화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넥슨 이용자가 네이버 로그인 회원'으로 전환하면 앞으로 게임 캐시 충전 등 결제 시 기존 넥슨 결제창 대신 네이버페이 기반 결제창을 이용하게 된다.

네이버와 넥슨은 18일 '네이버 로그인 회원' 전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동으로 넥슨 이용자는 네이버 로그인 기반으로 게임 계정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만 14세 이상 본인인증을 완료한 이용자라면 누구나 기존 넥슨 계정을 네이버 계정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전환 이후에도 기존 게임 플레이 기록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네이버 로그인 회원으로 전환하면



넥슨 내 결제 화면이 네이버페이 기반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 다양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전환 이후에는 네이버페이 기반 결제창 안에서 결제가 이뤄지는 구조다.

로그인 전환 이용자는 네이버페이 결제창 안에서 네이버페이 미니 충전결제와 계좌·카드 간편결제, 일반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컬처랜드·티머니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양사는 이번 전환을 단순 로그인 연동이 아닌 통합 사용자 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대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뉴스

SKT, 뉴스룸서 AI 혁신사례 소개

'굿 체인지' 캠페인 진행

SK텔레콤이 인공지능(AI) 혁신과 고객 신뢰 회복에 박차를 가한다. SK텔레콤은 '굿 체인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인공지능 전환(AI)·고객 가치 혁신(CX)을 실천하기 위한 뉴스룸 장기 프로젝트다. 지난 4월 정재현 SK텔레콤 최고경영자(CEO)는 타운홀 미팅에서 "AI를 통한 업무 혁신과 CX를 통한 고객 신뢰 회복 두 가지 변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뉴스룸에서 AI 전환과 고객 가치 혁신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사례를 소개한다. 구성은 ▲Insight(인사이트) ▲Makers(메이커스) ▲참여형 이벤트 시리즈 등이다.

/조민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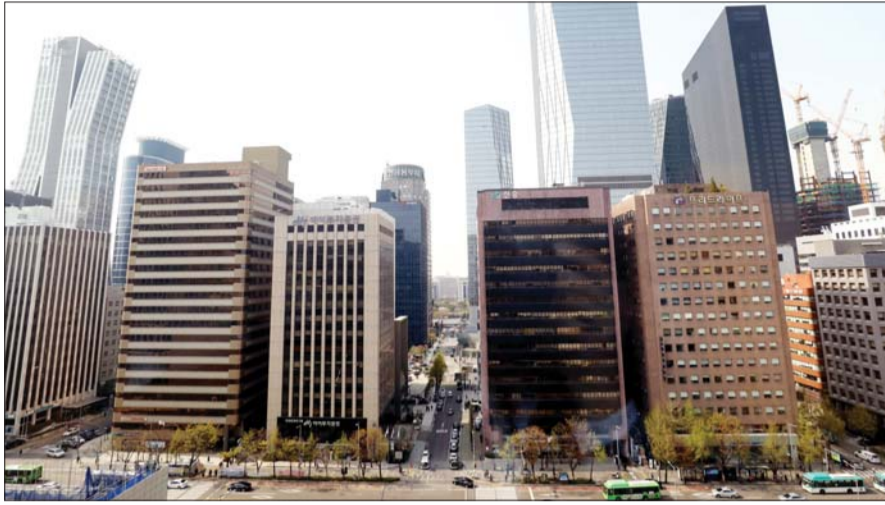
증권사, 호실적에도 주가 급락... 저평가 구간 vs 변동성 취약

증시 활황에 1분기 최대실적 행진 코스피 방향성에 따라 주가 영향 레버리지 상품 등 거래 확대 전망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주가는 오히려 급락했다. 시장에서는 최근 조정을 두고 "실적 대비 저평가 구간"이라는 평가와 "증시 변동성에 가장 취약한 업종"이라는 경계론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10대 증권사(미래에셋·한국·키움·NH·삼성·KB·신한·메리츠·대신·하나증권)의 1분기 합산 순이익은 4조33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4% 증가했다.

미래에셋증권은 1조191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업계 최초로 분기 순이익 1조원을 돌파했다. 한국투자증권은 7847억원, 키움증권은 4774억원, NH투자증권은 4757억원, 삼성증권은 4509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며 나란히 역대 최대 수준의 실적을 냈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

/뉴시스

'팔천피(코스피 8000 포인트)'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동반한 증시 활황이 실적을 이끌었다. 코스피 상승으로 거래대금이 급증하면서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이 크게 늘었고, 신용거래용자 잔고가 36조원에 육박하면서 이자수익도 증가했다. 5월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52조원을 넘어 1분기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어 2분기에 호실적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럼에도 주가는 실적과 반대로 움직였다. 코스피가 장중 8000선을 돌파한 직후 급락하면서 KRX 증권업종지수는 지난 6일 고점 대비 약 18% 하락을 기록했다.

증권주는 대표적인 고베타 업종(High-Beta)으로 꼽힌다. 거래대금 증가와 증시 호황의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지만, 시장이 흔들릴 때는 차익실현 매물도 가장 먼저 쏟아진다. 실적이 좋아도 코스

피 방향성에 따라 주가가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최근에는 증권사들의 이익구조가 과거보다 훨씬 다양해지면서 이러한 변동성을 일부 흡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에는 위탁매매 수수료 의존도가 높았지만, 최근에는 자산관리(WM), 투자은행(IB), 세일즈 앤드 트레이딩(S&T), 종합금융투자계좌(IMA)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며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고 있다.

해외 사업 역시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16개 증권사는 15개국에서 93개의 해외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 현지법인의 지난해 순이익은 6540억원으로 전년 대비 67.8% 증가했다.

시장환경도 우호적이다. 고객예탁금은 지난 12월 기준 137조4174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풍부한 대기 자금을 보여줬다. 외국인통합계좌 서비스 도입도 국내 증시 접근성을 높여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증권은 미국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와 손잡고 '외국

인통합계좌' 서비스를 제공해 해외 투자자가 국내 계좌 없이 한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고, 미래에셋·NH·KB·신한투자증권 등도 관련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이다.

증권가는 이 같은 구조 변화가 향후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태준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최근 증권업종 투자 의견을 '비중확대'로 상향하며 거래대금 증가와 신용공여 확대가 수수료 이익과 이자수익을 동시에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오는 27일 출시)와 국민성장펀드 등 신규 투자 상품이 잇따라 도입될 예정이어서 거래대금 확대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고연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주가오르고 거래가 늘어날수록 증권사가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본다"며 "주식 중개 수수료뿐 아니라 자체 운용 수익도 함께 증가할 수 있어 증권주의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olkova@metroseoul.co.kr



미래에셋자산운용, 국내 최초 운용자산 600조 돌파

박현주 회장 글로벌 투자전략 결실 ETF 중심으로 연금 등 사업 확장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국내 자산운용사 가운데 처음으로 총 운용자산(AUM) 600조원을 돌파했다.

상장지수펀드(ETF)를 중심으로 연금, 외부위탁운용관리(OCIO), 부동산, 디지털 자산관리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며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20여 년간 추진해 온 글로벌 투자 전략이 본격적으로 결실을 맺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총 운용자산은 624조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말 250조원이던 운용자산은 2024년 300조원, 2025년 50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1년 만에 100조원 이상 증가했다.

이런 성장을 이끈 핵심 동력은 ETF 사업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홍콩, 일본 등 13개 시장에서 747개 ETF를 운용하며 글로벌 ETF 시장 12위에 올라 있다. 국내

에서는 TIGER ETF가 개인과 연금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들이며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특히 TIGER 반도체 TOP10 ETF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투자 수요에 힘입어 순자산이 연초 2조원에서 4월 말 10조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국내 주식형 테마 ETF 1위, 전체 ETF 순자산 3위에 오른 대표 상품이다.

오는 27일 상장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서는

총보수를 연 0.0901%로 책정해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를 제시했다. 상품 경쟁력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까지 앞세워 ETF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ETF를 기반으로 한 경쟁력은 연금과 공공 자금 운용으로 확장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내 최초로 타깃데이트 펀드(TDF)를 도입한 이후 연금 펀드 설정액과 TDF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퇴직연금 전용 로보어드바이저를 출시하며 연금 투자 고도화에도 나섰다. 연기금투자플 주간운용사와 주택도시기금운용을 맡고 있으며, 올해 주택도시기금전담운용기관 평가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부동산 부문에서는 여수 경도에 JW메리어트를 유지하고 국내 코어 부동산 블라인드 펀드에서도 대규모 자금을 확보했다.

이 같은 외형 성장은 박현주 회장이 일찍부터 강조해 온 '국경 없는 투자' 철학과 글로벌 확장 전략 위에서 가능했다는 평가다. 박 회장은 올해 미래에

셋자산운용 배당금 16억원 전액을 기부하며 2010년 이후 16년 연속 기부를 이어갔다. 누적 기부액은 347억원에 달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앞으로 인공지능(AI)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삼아 투자 혁신을 이어갈 계획이다. 미국의 인공지능 법인 웰스팹과 호주의 로보어드바이저 스타스팹 등 글로벌 계열사와 협업해 투자 전략을 고도화하고 디지털 자산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 ETF 사업도 확대하며 글로벌 디지털 금융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이준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부회장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차별화된 투자 솔루션으로 혁신 성장을 이어가고, 국내에서는 TIGER ETF를 중심으로 투자 저변을 넓혀가고 있다"며 "AI를 핵심 성장 엔진으로 삼아 더 정교한 투자 솔루션으로 혁신을 이끌며 글로벌 선도 자산운용사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지난 13일, 서울 서대문 한국공인회계사회관에서 열린 '공인회계사 AI 활용 사례 공유 간담회'에서 참석 공인회계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공회 공인회계사 AI 역량 강화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한공회)는 지난 13일 한국공인회계사회관에서 '공인회계사 AI 활용사례 공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인회계사 업무에 AI 활용 경험과 관심이 많은 회원들이 참석했다. 회원들이 실무현장에서 활용 중인 AI 도구와 업무 적용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업무효율을 높이고, 회원 간 AI 활용 역량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회계사들은 "생성형 AI를 단순 검색 도구가 아닌 업무 특성에 맞춰 병행 활용하고 있다"며 "보고서 작성과 리뷰, 클라우드 코드(Claude Code)를 활용한 업무 자동화, 고객 응대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공회는 최근 전국 49개 지역공인회계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완료함에 따라 'KI CPA 개업 및 직무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하여 AI 활용 교육과 사례 공유를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KICPA AI 자문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각자의 AI 활용 경험과 실무 지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 지역공인회계사회를 대상으로 AI 활용 간담회도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이를 통해 회원 간 AI 활용 경험과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축적·공유하고, 전파 교육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허정윤 기자

K-증권사, 해외법인 실적 대폭 개선... 지난해 당기순익 4.5억弗

해외법인 순이익 2년 연속 증가세

지난해 국내 증권사들의 해외 현지법인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

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국내 증권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6개 증권사가 운영하는 83개 해외 현지법인의 당기순이익은 4억5580만달러(약 6540억원)로 집계됐다. 전년 2억7170만달러(약 3898억원)보다 67.8% 증가한 규모다. 이는 16개 증권사 전체 당기순이익의 8.7%에 해당한다.

증권사 해외법인 순이익은 2023년 1억650만달러에서 2024년 2억7170만달러, 지

난해 4억5580만달러로 2년 연속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갔다.

실적은 미국·홍콩·베트남 법인이 주도했다. 국내 증권사가 진출한 15개국 가운데 미국, 홍콩, 베트남 등 13개국에서 총 4억6580만달러의 이익을 냈다. 반면 중국과 일본에서는 총 1000만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전체 83개 현지법인 가운데 51개(61.4%)는 흑자를 냈고 32개(38.6%)는 적자를 기록했다.

해외 사업 외형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해외 현지법인 자산총계는 357억4000만달러(약 51조3000억원)

로 전년 말보다 4.3% 증가했다. 이는 조사 대상 증권사 전체 자산(714조8000억원)의 7.2% 수준이다.

자기자본은 당기순이익 증가와 유상증자 등에 힘입어 87억7000만달러(약 12조6000억원)로 7.8% 늘었다. 전체 증권사 자기자본(72조7000억원)의 17.3%에 해당한다.

지난해 말 기준 16개 증권사는 15개국에서 총 93개의 해외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영업활동을 하는 현지법인이 83개, 시장조사 목적의 사무소가 10개다.

지역별로는 홍콩·중국·싱가포르 등 아

시아지역이 66개로 전체의 71.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미국은 18개, 영국은 7개, 그리스와 브라질은 각각 1개였다. 최근 인도 진출이 확대되면서 기존 동남아 중심의 해외 전략이 미국과 인도 등으로 다변화되는 모습이다.

지난해에는 미국 4개, 홍콩 3개, 인도 2개 등을 포함해 총 14개 해외점포가 신설됐고 중국 사무소 1개가 폐쇄돼 전체적으로 13개 점포가 순증했다.

증권사별로는 미래에셋증권이 현지법인 26개와 사무소 3개를 포함해 총 29개의 해외점포를 운영하며 가장 적극적으로 글로벌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어 한국투자증권 11개, NH투자증권 8개, KB증권 7개 순이었다.

/허정윤 기자

“안전사고 책임 떠넘겨”... 택배업계 불공정 계약 적발

공정위, 택배사 과징금 31억 부과
9186건 하도급 계약 전수조사
부당 특약·능장 계약 관행 ‘제동’

국내 택배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5대 대형 택배업체들이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안전사고 책임을 영업점에 떠넘기는 등 부당한 특약을 맺고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는 ‘갑질 관행’을 일삼다 규제당국에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 씨제이대한통운(CJ), 롯데글로벌로지스(롯데), 한진, 로젠 등 5개 택배사업자가 영업점 및 터미널 운영사업자 등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을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계약 서면을 미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억 7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쿠팡 7억 5900만 원, 한진 6억 9600만 원, 롯데 6억 3300만 원, CJ 6억 1200만 원, 로젠 3억 7800만 원 순

〈5개 택배사업자의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 관련 현황 및 조치내용〉

/공정위

구분	쿠팡	CJ	롯데	한진	로젠
부당특약 계약건수	1155건	2306건	3609건	1664건	452건
관련 수급사업자수	553개	2175개	1211개	773개	230개
법 위반기간	2022.1~2026.3	2022.4~2026.3	2022.1~2026.3	2021.7~2026.4	2023.12~2026.4
조치내용	시정명령	재발방지명령, 90일 이내 특약조항 수정·삭제 명령* 등			
	과징금	5억6700만원	5억400만원	4억8300만원	5억4600만원

*롯데는 심의일 현재 신규계약서 발급을 완료하여 재발방지명령만 부과

이다.

국내 택배시장은 온라인 쇼핑 일상화와 쿠팡커머스 시장의 가파른 성장으로 2023년 이후 1인당 연간 택배 이용건수가 100건을 돌파하는 등 급성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쟁 속에서 대형 택배사들은 안전사고나 물품 훼손에 따른 배상책임을 영업점에 전가하고, 기준이 모호한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소명 기회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을 설정해 영업점과 택배 종사자들을 압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택배 종사자들의 운영질화와 안전사고를 초래한다는 비판에 따라 공정위,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작업 현장을 불시 점검하면서 시작했다. 공정위는 총 9186건의 계약현황을 전수 조사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5개사는 다양한 형태로 영업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 특약을 맺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주요 유형은 ▲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일체 전가 ▲행정처분·고소에 따른 변호사 비용 및 벌금 대납 부담 ▲노

동쟁의(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전가 ▲부동산 담보 설정비용 전액 부담 ▲계약 위반 시 소명 기회나 최고 절차 없는 즉시 계약해지 조항 등이다.

특히 택배사들은 하도급법상의무인 계약서면 발급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총 2055건의 계약에서 용역 수행이 시작될 때까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최장 761일이 지난 후에야 뒤늦게 발급한 사례도 있었다.

심의 과정에서 택배사들은 “서면을 적시에 발급하지는 않았지만 뒤늦게라도 발

급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서면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지연 발급 받은 수급사업자와 관련 계약 건수가 상당하고, 사업자들 대부분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위법성이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5개 택배사들은 부당 특약 전면 수정에 들어갔으며, 계약서 미발급 관행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계약체결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준법 경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택배사업자들이 단기간에 사업 규모를 키워온 것과는 달리 수급사업자와의 공정한 계약 체결 관행 정착에는 소홀해 종사자들의 안전에 대한 투자와 책임에는 미흡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부당특약 설정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반도체 핵심 공업용수 ‘초순수’ 국산화 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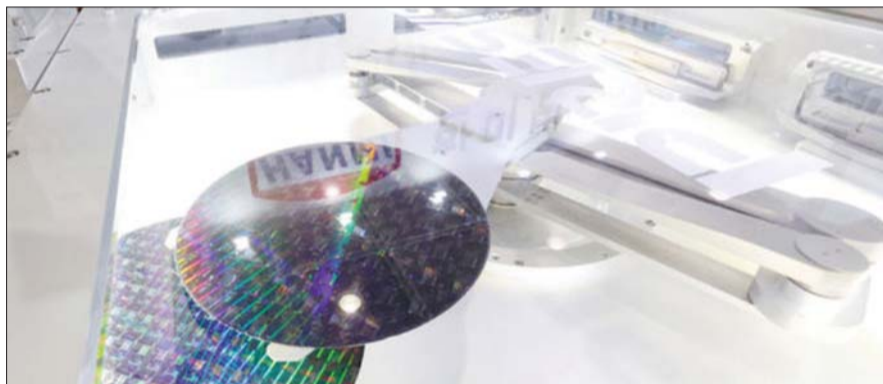
기후부, 초순수 실증설비 기술 이전
SK실트론 제조공정에 처음으로 공급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초순수(고순도 공업용수)의 실증설비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했다고 18일 밝혔다.

초순수는 반도체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데 그간 외국기업의 기술을 사용해 왔다. 수중 불순물을 극미량 수준까지 제거한 물이 초순수다. 반도체 표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데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기후부는 이날 경북 SK실트론 구미사업장에서 초순수 생산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 성과물인 ‘초순수 실증설비 기술이전’을 위한 성과 활용 협약식을 개최했다.

초순수 생산에는 고난도의 수처리 기술이 요구된다. 수중의 이온물질 농도를 1ppt(1조분의 1) 이하, 용존산소 등 기체 농도를 1ppb(10억분의 1) 이하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동안 미국과 일본 등 해외



반도체 웨이퍼

/뉴시스

기업이 생산기술을 주도해 왔다.

기후부는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물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21년부터 초순수 생산기술 국산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설비는 초순수 제조의 핵심 공정에 국내 기업이 개발한 주요 장치 및 소재를 적용해 장기간 운영 실적을 확보했다 ▲자외선 산화장치를 통한 유기물 제거

▲탈기막을 활용한 용존산소 제거 ▲이온교환수지를 통한 이온 제거 및 수질 고도화 등이다.

이는 국내 설계 기술로 생산된 초순수가 실제 반도체 제조공정에 공급되는 최초 사례다. 국내 기업의 현장 적용 실적 확보와 함께 초순수 시장 진입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탄소중립 수산과학조사선 ‘탐구2호’ 출항

해수부, 서해 조사 본격화

친환경 수산과학조사선이 서해 운항을 개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19일 인천 서구 아라인천여객터미널에서 친환경 수산과학조사선인 ‘탐구2호’의 취항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산과학조사선은 주로 알·치어 및 과학어군 탐지 등을 맡는다. 또 수산자원조사를 비롯해 어장환경 및 적조 모니터링 조사 등을 수행한다.

239톤(t) 규모의 탐구2호 개발·조립에는 151억 원이 투입됐다. 1997년 진수한 기존 조사선(90t) 대비 2.7배 커져 승선 인원도 기존 11명에서 20명으로 늘었다. 또 연구원 수면 공간을 마련하는 등 승선환경이 개선돼 24시간 운항이 가능해졌다. 선박에는 수중별 수온염분 측정기와 트



친환경 수산과학조사선 ‘탐구2호’

/해수부

롤모니터링 시스템, 과학어군탐지기 등 첨단 조사장비 9종도 탑재됐다. 이 조사선은 서해에서 고품질의 연구자료를 수집하고, 실시간으로 수산자원을 탐색·추적해 조사의 정밀도를 높이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특징은 친환경 하이브리드(디젤기관+배터리) 추진기관이라는 것. 입·출항과 조사 수행 시 전기추진 운항이 가능해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효과를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 박람회

28일부터 이틀간 aT센터

인공지능(AI)과 로봇, 웨어러블 기술이 장애를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 범위를 비약적으로 넓히는 ‘보조공학’ 기술이 대거 공개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오는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제21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직업용 보조공학기기 행사인 이번 박람회는 ‘장애인 고용의 미래’를 주제로 60여 개 업체가 참여해 총 200여 점의 최신 기기와 신기술을 선보인다. 특히 올해 행사에서는 로봇과 AI 관련 전시를 대폭 확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국마사회, 장애인 일자리 창출 나선다

장수목장, 직업 훈련 지원

한국마사회가 말산업 부문에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18일 마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마사회 장수목장은 지난 13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 내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에 협력하기로 했다.

장수목장은 목장 내 인프라를 활용해 장애인 직업 훈련을 지원하고, 육성조련 사회는 장애인 채용과 인사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전북 장수군 노인장애인복지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는 실질적인 취업 연계 및 사업 확대를 지원한다.

장수목장은 장수군 노인장애인복지관과 함께 말 요양소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시범으로 운영해 왔다. 이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 등과 말 산업 분야 취업



전북에 위치한 한국마사회 장수목장

지원을 위한 기관 간 업무 협의를 마쳤다. 장애인들은 현재 매주 수요일 목장을 찾아, 직무를 체험하는 동시에 교육과정 수강에도 참여하고 있다.

한국마사회의 김진갑 장수목장장은 “이번 협약 체결은 단순 체험 프로그램을 넘어 장애인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말 육성조련업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장애인 고용 모델을 확산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해운·항만 공기업, 사이버 위협 공동 대응

부산항만공사, 정보보호 협의회 출범

부산항만공사가 타 지역 항만공사 등과 공동으로 해운·항만 부문 공공기관 정보보호 강화에 나선다.

18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 15일 해운·항만 공기업 정보보호 협의회가 출범했다. 지난 15일 부산항만공사 본사에서 열린 발족식에는 여수광양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 등 3개 기관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참여했다.

이 협의회 발족은 인공지능(AI)을 악용한 고도화된 사이버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개별 기관의 인력과 조직의 한계를 넘어 해운·항만분야의 통합 방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특히 기존의 단순 정보공유를 넘어, 정보보호분야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전형 협력 모델’을 가동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주요 협력 분야는 ▲기관 간 통합 보안 체계 마련 ▲사이버 보안 관련이슈 공동 대응 ▲합동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및 교차 점검 ▲정보보호 인력의 전문성 강화 등이다.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공급망 공격이나 국가 중요시설을 겨냥한 해킹시도에 대해 ‘윈윈’으로서 강력한 대응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발족식에 이어 진행된 첫 회의에서는, 기관별 정보보호 현황을 공유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공동 실천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사이버보안은 개별 기관의 문제를 넘어서 글로벌 물류 공급망의 지속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번 협의회 결성이 우리나라 항만 물류 분야의 사이버 보안 면역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건강창업의 새로운 기준!

대한민국 유통 명가 햐터그룹이 당신의 '성공창업'을 지원합니다.

30년 유통 노하우와 브레인TV 홍보 지원으로 검증된 건강 브랜드,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공식파트너 모집

불황에도 꺾이지 않는 **30년 건강 비즈니스**,
이제 당신의 이름으로 시작하십시오.

✓ **자사 TV 방송국 광고 지원**
브레인TV 채널 노출을 통한 강력한 마케팅

✓ **건강에 대한 모든 해답을 한 곳에!**
명품 홍삼, 건강식품, 건강용품, 의료기기 등
검증된 라인업

✓ **유연한 창업 모델**
무점포부터 대형 매장까지 맞춤형 컨설팅

✓ **최저 창업 비용 398만원**
부담 없고 합리적인 창업비용으로 실질적인 기회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30년 노하우를 통째로 빌려드립니다.

상담 문의 환영 1522-7585

창업상담 방문을 하시는 모든 분께

- 무료 창업 컨설팅 제공
- 창업가이드북 증정
- 홍삼선물세트 198,000원 상당 증정

QR 스캔



대한홍삼(주)

BH 대한홍삼 [주] www.koreahongsam.co.kr

본사 :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대륭테크노타운8차 601호
(가산디지털단지역 하차 ▶ 1호선 11번 출구 / 7호선 9번 출구)



경북, 생성형 AI 인재 키워 가상융합 산업 거점 굳힌다

과기정통부 인력양성 공모 선정 가상융합혁신센터와 연계 추진 제조업 중심 산업 고도화 기대 XR·VFX 콘텐츠 제작교육 운영 기업 프로젝트·취창업 지원 확대

경북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생성형 AI 기반 가상융합 콘텐츠 제작 전문 인력 양성'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가상융합 산업 거점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경북 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 운영 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이번 인력양성 사업에도 잇달아 선정되면서 가상융합 산업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게 됐다.

경북도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를 포함한 총 10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 인프라와 연계해 제조업 중심의 지역 산업 구조 고도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생성형 AI 기반 가상융합 콘텐츠 제작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지역 산업 특



경북도청 전경.

성에 맞춘 생성형 AI 기반 가상융합 콘텐츠 제작 실무형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생성형 AI 기반 단계별 교육과정 운영 ▲지역 기업 연계 프로젝트 ▲수료생 대상 취·창업 프로그램 지원 ▲교육 성과 확산 및 후속 사업 연계 등으로 추진된다.

교육과정은 초보자 대상 기초 교육과 경북 주력 산업인 반도체·방산, 기계·정밀부품 분야와 연계한 심화 교육으로 구

성된다.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XR과 VFX 등 가상융합 콘텐츠 제작 이론과 실습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또 지역 기업과 연계해 제품 홍보와 공정 시각화 콘텐츠를 제작하는 현장 밀착형 프로젝트를 운영해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구미 동북권 메타버스허브와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를 거점으로 문경 버추얼e스튜디오와 연계한 '경북 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를 교육 실습장으로

활용한다.

혁신센터는 3D·VR·AR 등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해 제품 시각화와 제품 홍보, 교육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경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 교육을 넘어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형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텍스터스튜디오 등 VFX 전문기업이 참여하는 전문가 멘토링과 기업 맞춤형 프로젝트, 채용설명회, 1대1 면접 등 취·창업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양희경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혁신센터 인프라와 생성형 AI 인재양성, 민관 협력체계가 결합해 경북민의 가상융합 생태계가 구축됐다"며 "제조업 중심의 지역 산업을 고부가가치 디지털 콘텐츠 산업으로 전환해 경북이 AI와 가상융합을 선도하는 디지털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kih9@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영주시

영주일품쌀, 2년 연속 품질 인정

영주시 대표 쌀 브랜드인 '영주일품쌀'이 경상북도 우수 브랜드 평가에서 다시 한번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시는 영주연합농협 미국종합처리장의 대표 브랜드인 영주일품쌀이 '2026년 경북 6대 우수브랜드 쌀'에 2년 연속 선정됐다. 경북 6대 우수브랜드 쌀 평가는 도내 생산 쌀 가운데 단일 브랜드 매출액이 20억 원 이상인 경영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전문 평가기관은 품위와 품질, 품종 혼합 비율 등 여러 항목을 종합 심사해 우수 브랜드를 선정한다.

/영주(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울진군

NFC 주소판으로 재난대응 개선

울진군은 생활안전 강화와 재난 대응 체계 고도화를 위해 관내 주요 시설물에 NFC 기능을 적용한 사물주소판 설치를 확대했다. 군은 둔치주차장과 대피시설 등 250곳에 새 주소판을 설치해 군민과 방문객의 위치 확인 편의를 높였다. 이번 사업은 긴급 상황 발생 시 구조기관이 현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주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설치 대상에는 버스정류장과 인명구조함을 비롯해 지진옥외대피장소와 지진해일급대피장소 등이 포함됐다. 새로 도입된 사물주소판은 NFC 기능을 탑재하여, 스마트폰을 주소판 가까이 가져가면 별도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위치 정보와 시설 안내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

/울진(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포항시

후쿠야마 축제서 교류 확대

포항시는 일본 자매도시인 후쿠야마에서 열린 '제59회 후쿠야마 장미축제'에 축하사절단을 파견하고 양 도시 간 우호 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후쿠야마 장미축제는 매년 백만 송이 장미로 도시 전역을 꾸미는 지역 대표 축제로 문화와 관광을 상징하는 행사다. 이번 축제에는 장삼길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포항시 대표단이 참가해 지난 16일과 17일 열린 개막식과 거리 퍼레이드, 각종 문화행사에 함께했다. 포항시는 현지에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주요 관광지와 대표 먹거리를 소개하고 해양관광도시 포항의 매력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경주시

청년 만남지원 참가자 모집

경주시는 청년 미혼남녀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만남지원사업 '청춘동아리, 두근두근 설렘의 시작 프로젝트' 참가자를 오는 6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성과의 교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들에게 취미와 체험활동을 매개로 한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참가자 모집 이후 6월 중 전문 결혼 컨설턴트와 함께하는 1박 2일 커플 매칭캠프를 운영할 계획이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경북, 울릉도 응급의료 강화사업 효과

울릉 찾은 30대 응급환자 신속 대처 파견 신경과 전문의가 긴급 처치

경북도의 '울릉군 응급의료 강화 지원 사업'이 효과를 내고 있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울릉도를 방문한 30대 여성이 지난 13일 새벽 두통과 오한, 근육통, 어지러움 증세가 지속돼 같은 날 오전 6시께 울릉군보건의료원 응급실을 찾았다.

당시 이곳에는 대구파티마병원 소속 신경과 전문의가 파견 근무 중이었다.

진찰 결과 급성 세균성 수막염 및 뇌염 가능성이 의심되는 긴급한 상황으로 의료진은 즉시 응급처치를 한 뒤 환자 거주지인 울산지역 삼강병원과 협의해 소방헬기로 환자를 이 병원으로 이송했고 환자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울릉군보건의료원은 그동안 울릉군민(9000여명)과 관광객(연간 41만여명)의 건강을 책임지는 울릉의 유일한 의료기관이지만 의료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특히 응급의료 공백 우려가 컸다.

경북도는 2024년 말부터 응급실 의료



울릉 응급의료.

인력 확보, 대구·경북 종합병원 전문의 파견진료, 응급의료 장비 보강, 의료인력 교육·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고, 8개 협력병원 9개 진료과 전문의 31명이 파견진료에 참여해 총 1593건의 진료를 했다.

이 결과 중증환자 헬기 육지 후송 건수는 최근 3년 연평균 72.3건에서 53건으로 19건 줄어 '응급의료 여건 개선' 사업이 효과를 내고 있다.

/안동(경북)=김준한 기자

경남, 985억 규모 합정 MRO 생태계 구축

방사청 국비 공모사업 선정

경남도는 방위사업청 주관 '2026년 방산혁신클러스터 합정 MRO' 국비 지원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부산, 울산, 전남과 함께 2030년까지 5년간 국비 245억, 지방비 245억 등 총 490억원을 투입해 국내외 합정 MRO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및 MRO 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지원 등에 협력한다. 시도별 사업비 규모는 경남 160억 원, 부산 100억 원, 울산 150억 원, 전남 80억 원이다.

경남도는 '합정 MRO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해 합정 MRO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단을 운영하고, 8개 기술개발 과제와 20건의 보안인증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도내 62개 기업의 수출과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한편 경남·부산·울산·전남 4개 광역자치체 컨소시엄 대표 지자체 역할을 맡게 된다.

지난 3월 선정된 산업통상부 주관 '합정 MRO 사업(495억 원)'과 연계해 총 985억 원 규모 재원을 바탕으로 합정 건조부터 유지·보수까지의 전주기적 지원 생태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창원(경남)=이도석 기자 metrobusan@

부산, 중소벤처 승계 공백 해소 금융지원

민관 협력 200억 자금 조성

부산지역 민관이 협력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업 승계와 경영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부산시는 18일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산상공회의소, 기술보증기금, BNK부산은행 등과 부산 중소기업의 지속경영을 위한 인수합병(M&A)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M&A 활성화를 통해 기업 승계 공백을 완화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협약 참여기관들은 총 2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기관별로는 2.0%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부산상공회의소는 관내 기업 대상 금융지원 사업 안내와 지원대상기업 추천을 담당

한다. 기술보증기금은 출연금 기반 신용보증을, BNK부산은행은 특별 출연과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기업당 대출은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며, 부산시의 이차보전 지원 한도는 8억원으로 설정했다. 특히 시는 지난해 1.5%인 이차보전율을 올해 2.0%로 확대해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상환 조건은 3년 만기로, 2년 거치 후 1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후 일시 상환 방식 중 기업이 자금 운용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한편 부산시는 올해 중등 분쟁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지역 기업의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전국 최대 규모인 총 1조3680억원의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공급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8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금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부산=이도석 기자

충남, 부석사 금동관음상 복원 불상 공개

서산 부석사서 복원 불상 봉안식

700년 세월을 건너온 고려의 미소가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왔다. 충남도가 일본에 있는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정밀 복원한 불상을 공개하며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충남도는 지난 17일 서산 부석사에서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복원 불상 봉안식을 열고, 원본과 동일한 성분과 전통 기법으로 제작한 복원 불상을 일반에 공개했다.

이번 복원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이일본 쓰시마 사찰 간논지(觀音寺)의 공식 복제 허가와 일본 기업이 제공한 3차원(3D) 스캔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진했다. 나가사키현 지정문화재 복제 허가와 국가유산청의 분석자료 협조도 함께 이뤄졌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

내수 부진에도 웃은 유통가... 외국인·체험매장 통했다

공간혁신·체류형소비 전략 주요 롯데백, 영업익 70.6% 급증 신세계백, 외국인 매출 90% ↑ 현대백, 더현대 서울 성장세 이마트, 8년 만에 최대 실적 롯데마트, 그랑 그로서리 효과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 매장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쇼핑하는 모습. /롯데마트

1분기 유통업계 실적이 모두 발표된 가운데, 내수소비 위축에도 불구하고 업계 전반이 준수한 실적표를 받아들었다. 방한 외국인의 증가와 기존 점포 리뉴얼을 통한 고객 경험 혁신이 호실적을 이끌었다.

18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주요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 업체들은 외국인 소비 확대와 체험형 점포 전략에 힘입어 올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성장세를 기록했다. 유통업계가 단순 가격 경쟁을 넘어 공간 혁신과 체류형 소비 확대에 집중한 전략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번 1분기 백화점 업계는 역대급 호실적을 거두는 데 성공했다. 업체별 실적을 보면 롯데백화점의 순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2% 신장한 8723억 원, 영업이익은 70.6% 가파르게 증가한 1912억 원이다. 이어 신세계백화점의 순매출은

12.4% 증가한 7409억 원, 영업이익은 30.7% 늘어난 1410억 원이다. 역대 1분기 최대 순매출을 갈아치운 현대백화점의 순매출은 7.4% 오른 6325억 원, 영업이익은 39.7% 신장한 1358억 원이다. 이처럼 백화점 3사 모두 매출 성장을 훌쩍 뛰어넘는 영업이익 신장률을 기록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증명했다.

이번 어닝 서프라이즈의 일등 공신은 단연 '외국인 매출'의 폭발적인 증가다. 명품과 주얼리, 패션 등 주요 상품군의 판매 호조와 맞물려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가 실적을 견인했다. 실제로 이 기간

외국인 매출 신장률은 롯데백화점이 92%, 신세계백화점이 90%에 달했다. 특히 글로벌 관광객이 집중되는 핵심 점포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는데, 롯데백화점 본점(103%)과 신세계백화점 본점(141%), 현대백화점 더현대 서울(121%)은 모두 전년 대비 2배가 넘는 외국인 매출 신장률을 기록하며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

업황이 다소 부진했던 대형마트 업계도 올해 1분기 준수한 성적표를 받아들며 한숨을 돌렸다. 점포 경쟁력을 강화한 효과가 나타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마트는 1분기 매출 4조3888억 원, 영업이익 1463억 원을 기록하며 8년 만에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번 실적은 단순 비용 절감이 아닌 본업 경쟁력 회복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스타필드마켓으로 재단장한 일산점 매출은 75.1%, 방문객 수는 104.3% 급증했으며 동탄점과 경산점 매출도 각각 12.1%, 18.5% 증가했다.

롯데마트는 1분기 매출 1조5256억 원, 영업이익 338억 원을 기록하며 각각 2.0%, 20.2% 증가했다. 프로모션 효율화와 판매비 절감으로 수익성을 개선한 가운데, 식품 특화 매장 '그랑 그로서리' 전략이 성과를 냈다. 구리점은 월 누적 방문객 30만 명을 돌파하며 목표 매출을 70% 이상 초과 달성했다.

편의점 업계 또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신장하면서 내수부진 효과를 피해갔다. GS25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한 2조 863억 원, 영업이익은 23.8% 늘어난 213억 원이다. 개점 후 1년 이상 운영 중인 기존 점포의 매출이 4.7% 신장하며 성장을 이끌었는데, 특히 신선식품 경쟁력을 강화한 '신선 강화형 매장'이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 우

량 입지 중심으로 전개 중인 신선 강화형 매장의 1분기 일평균 매출은 일반 매장 대비 1.6배 수준에 달했으며, 관련 점포 수도 836개까지 확대되며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한 2조 1204억 원, 영업이익은 68.6% 급증한 381억 원이다. CU 역시 기존 점포 매출이 2.7% 신장하는 질적 성장을 거뒀다. 라면 라이브러리, 디저트 파크, 러닝 스테이션 등 고객 체험을 강조한 특화 매장을 집중 전개해 신규 고객 유입을 늘렸고, 트렌디한 디저트와 가성비 간편식 등 차별화 상품군이 대거 흥행했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 전반이 고객 경험을 크게 혁신한 주요 점포들이 매출을 이끌면서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오프라인 유통의 성패는 소비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공간 혁신과 차별화된 콘텐츠에 달린 만큼, 트렌드 변화에 맞춘 특화 매장 중심의 체질 개선 노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골든블루, 일본서 K-위스키 경쟁력 검증

사피루스·다이아몬드 2종 판매 도쿄 바쇼서 현지 바이어 점점 할인점·리뷰샵 중심 입점 확대



골든블루가 일본에 수출된다. /골든블루

국내 위스키 업체가 '위스키 강국' 일본 시장에 처음으로 발을 들였다. 제품 경쟁력이 까다로운 일본 소비자와 바이어의 평가대에 오르면서 이른바 'K-위스키'의 해외 확장 가능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골든블루는 18일 일본 시장에 자사 위스키 2종을 수출하며 현지 판매에 나선다고 밝혔다. 일본 수출은 이번이 처

음이다. 수출 제품은 '골든블루 더 사피루스'와 '골든블루 더 다이아몬드'다.

일본은 위스키 소비 저변이 두텁고,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시

장으로 평가받는다. 업계에서는 일본 시장 진입 자체가 품질과 브랜드 경쟁력을 검증받는 과정으로 여겨진다. 특히 일본은 세계 주요 위스키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 현지에서의 반응이 향후 글로벌 시장 확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성장성이 크다.

회사 측은 본격적인 유통에 앞서 지난 9~10일 도쿄에서 열린 Tokyo Bar Show에 참가해 제품을 먼저 선보였다. 이 행사는 일본 내 위스키 및 스피릿 업계 관계자와 애호가들이 대거 찾는 행사로 현지 바이어 접점을 확보하기 위한

자리로 활용됐다. 유통은 도쿄 내 오쿠보, 아카사카, 신주쿠 등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역을 시작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초기에는 대형 할인점과 리뷰샵 중심으로 입점하고, 이후 유흥 채널로 판매처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이번 수출은 최근 K-푸드, K-주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흐름 속에서, 국내 위스키 브랜드가 아시아 핵심 주류 시장에 본격 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 시장에서의 성과에 따라 향후 다른 국가로의 수출 확대 여부도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교촌치킨, 점포당 매출 '업계 평균 2배'

지난해 가맹점 평균 7억8000만원

치킨 프랜차이즈업계의 수익성 격차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교촌치킨 가맹점의 평균 매출과 폐점률 수치가 업종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당 매출은 치킨 업종 평균의 두 배를 넘었고, 폐점률은 사실상 '0%'에 가까운 수준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출점 경쟁보다 기존 점포의 매출과 운영 안정성에 무게를 둔 전략의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교촌에프앤비는 2026년 1분기 실적 자료를 통해 2025년 기준 가맹점 평균 매출액이 7억8000만원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같은 시점 기준 폐점률은 0.0%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외식업종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3억5100만원, 치킨 업종 평균은 3억2800만원이다. 폐점률은 외식업

종 평균 15.8%, 치킨 업종 평균 12.0% 수준이다. 단순 비교만 놓고 보면 교촌 가맹점의 매출은 치킨 업종 평균의 약 2.4배, 폐점률은 업종 평균 대비 현저히 낮다.

교촌의 가맹점 평균 매출은 동종 업계 상위 5개 브랜드 평균(5억8400만원)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회사 측은 매장 수 확대보다 점포당 매출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춘 운영 전략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폐점률 추이도 눈에 띈다. 정보공개서 기준 교촌의 폐점률은 2022년 0.2%, 2023년 0.7%, 2024년 2.1%였다. 2024년 수치에는 테마파크·리조트 등 특수 매장 20곳의 계약 만료가 반영됐다. 이를 제외하면 실질 폐점률은 0%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2025년 사업보고서에는 폐점률이 0.6%로 기재됐으며, 2026년 1분기에는 0.0%로 낮아졌다.

/신원선 기자

하림, 운동족 겨냥 단백질 제품 체험 확대

WNGP 강남 현장서 체험 부스 운영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피트니스 대회 현장에서 고단백 제품을 앞세워 젊은 운동 인구와의 접점을 넓혔다. 최근 '헬스인 식단템'으로 닭가슴살 제품군이 재조명되는 가운데, 음료형 단백질 제품까지 라인업을 확장하며 소비자 체험에 나선 것이다.

하림은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2026 WNGP 강남 현장에 체험 부스를 마련하고 자사 단백질 제품을 선보였다. WNGP는 내추럴 피트니스 대회로, 도핑 검사를 통과한 선수들이 출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날 행사에는 선수 200여 명과 관람객 1000여 명이 몰렸으며, 근성장과 식단 관리에 관심이 높은 20~40대 참가 비중이 높았다.

부스에서는 음료 형태의 단백질 제품 '닭가슴살 프로틴' 시음이 진행됐다. 지



'2026 WNGP 강남' 대회 현장에 마련된 하림 '닭가슴살 프로틴' 체험 부스에서 대회 참여자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난 4월 출시된 고소한맛과 함께 6월 출시 예정인 흡입자맛도 공개됐다. 제품 한팩(240ml)으로 단백질 21g을 섭취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저당·저지방 콘셉트를 적용했다는 점이 안내됐다. 현장 참가자들은 닭가슴살을 조리해 섭취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간편하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을 보였다.

/신원선 기자

CU·GS25

편의점 배달전쟁 이젠 새벽도 뚝다

쿠팡이츠 통해 오늘부터 확대

편의점 CU와 GS25가 심야 시간대 배달 수요를 잡기 위해 24시간 배달 서비스 경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양사는 이달 19일부터 배달 플랫폼 쿠팡이츠를 통해 배달 운영 시간을 24시간 체제로 일제히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야간 생활 패턴이 다양해지면서 급증한 심야 배달 수요를 흡수하고 점포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그동안 포켓CU와 쿠팡이츠 등을 통해 최대 새벽 3시까지만 배달 서비스를 제공했던 CU는 이번 확대 조치로 배달 공백을 완전히 없앴다.

/김서현 기자 seoh@

세븐일레븐

디진다돈가스 이어 매워디짐 소스 출격

13단계 매운 소스 활용

세븐일레븐이 20일부터 온정돈가스의 챌린지 메뉴인 '디진다돈가스'의 소스에서 3 단계 더 매워진 '매워디짐 소스'를 활용한 콜라보 푸드 상품과 스낵을 순차적으로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서울 신대방동 소재 '온정돈가스'와 협업을 진행했다. 온정돈가스의 시그니처 챌린지 메뉴인 '디진다돈가스'의 소스를 그대로 사용해 등심돈가스, 돈가스김밥 등 강렬한 매운맛의 '디지게매운' 간편식 5종을 선보였다. 해당 상품들은 출시 한 달 여만에 누적 판매량 50만개를 돌파했다.

/김서현 기자

국내 바이오업계, 특허·원료기술로 비만치료제 ‘승부수’

기술력·원료의약품 경쟁력 키워 알테오젠, 특허 포트폴리오 확보 엠에프씨 ‘오포글리프론’ 특허 출원



비만약 특허 전쟁 관련 이미지.

/제미니AI 생성 이미지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비만·당뇨 치료제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이 지식재산권(IP) 방어와 플랫폼 기술 선점에 나선다. 글로벌 경쟁사의 특허 공격을 무력화하는 한편, 원료의약품 공급망 구축, 자체 플랫폼 고도화 등으로 기업 입지를 다진다.

18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바이오의약품 플랫폼 기업 알테오젠은 원천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경쟁사 할로자임이 제기한 ‘재조합 히알루루니다제 제조 방법’에 대한 미국 특허 무효심판의 심리 개시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다. 해당 심판에서 할로자임은 단 하나의 청구항에서도 합리적인 승소 가능성’을 갖추지 못해 본 심리가 차단된 것이다.

이런 결정으로 알테오젠은 핵심 자산인

‘ALT-B4’의 기술적 차별성과 고유 권한을 공식화하게 됐다. ALT-B4는 알테오젠 보유하고 있는 정맥주사 제형을 피하 주사 제형으로 전환하는 기술로 구현한 물질이다. 글로벌 블록버스터 약물 키트루다를 피하 주사 제형 개발 등에 쓰이고 있다.

이러한 특허 포트폴리오까지 확보한 알테오젠은 자체 플랫폼을 지속 강화하는

모습이다. 특히 초장기 지속형 플랫폼을 적용한 월 1회 투약 비만 치료제 개발로 기술을 확장한다.

실제로 알테오젠은 올해 2월 신규 플랫폼으로 개발한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의 연구 현황을 공유한 바 있다. 투약 주기를 월 1회로 설계함은 물론, 비만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체중 감소, 체중 유지 등 우수 약효 규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원료의약품 전문기업 엠에프씨는 소재 국산화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엠에프씨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오포글리프론’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 중간체에 대해 결정형 및 제조방법 관련 특허 3건을 출원했다. 이번 특허 핵심은 오포글리프론 핵심 중간체의 신규 결정형과 제조 공정에 있다. 엠에프씨가 자체 보유한 고순도 결정화 기술은 품질 안정성과 생산 효율성에 중요하다는 평가다.

엠에프씨 측은 “동일 성분이라도 결정 구조에 따라 안정성, 순도, 생산성 등이 달라질 수 있다”며 “기존 주사제에서 향후 경구제로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원료의약품 분야 핵심 기술을 앞세워 미중족 수요를 공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체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전통 제약사들의 움직임도 빠르다.

동아에스티는 비만치료제 후보물질 ‘DA-1726’에 대해 이미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주요국에서 총 39건의 특허 등록 및 출원을 마쳤다. 오는 2041년까지 글로벌 독점 권리를 굳힌 것으로 장기적인 특허 전략으로 글로벌 상업화 가능성을 높

인다. 한미약품은 독자 플랫폼 ‘랩스커버리’ 중심의 신약을 추가한다. 국내 최초 토종 비만약 후보물질인 ‘에페글레나타이드’를 ‘통합 대사질환 치료제’로 내놓기 위한 임상에 착수했다.

에페글레나타이드의 당뇨병 임상3상에서 첫 환자 투약을 시작했다. 메트포르민과 다파글리플로진으로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에페글레나타이드의 병용투여 시 위약 대비 유효성 및 안전성을 비교 평가한다.

에페글레나타이드는 한미약품만의 약물 전달 기술 랩스커버리가 도입된 파이프라인으로 한미약품은 장기 지속형 약물 기전을 다양한 질환에서 응용하고 있다.

국내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특허는 기술을 보호하는 진입 장벽이면서 기업 가치와 신뢰도를 좌우하는 지표”라며 “글로벌 IP 전략이 국내 기업 생존력을 키우는 무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롯데바이오, 오티모파마와 CDMO 협력

원료의약품 생산부터 공정 개발까지 ‘이중 거점 전략’ 앞세워 수주 강화

롯데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의약품 CDMO(위탁개발생산) 수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영국 바이오 기업 오티모 파마와 항체 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롯데바이오로직스의 미국 생산기지인 시러큐스 바이오 캠퍼스가 오티모 파마의 항체 신약 ‘Jankistomig’ 원료의약품을 생산을 맡는다.

양사는 앞서 지난해 6월에도 항체 의약품 위탁생산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계약은 원료의약품 생산뿐 아니라 공정 개발까지 포함해 양사는 개발 단계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이중 거점’ 전략에 속도를 내며 오티모 파마의 임상 및 상업화 물량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미국 시러큐스 바이오 캠퍼스는 세포주 개발부터 대규모 생산까지 아우르는 CDMO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국내 송도 바이오 캠퍼스의 경우 북미

와 아시아를 잇는 핵심 기지로 올해 준공 예정이다.

박제임스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는 “통합 CDMO 역량을 기반으로 향후 상업화까지 이어지는 장기 파트너십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티모파마의 스펜서 피스크 최고기술·품질책임자(CTQO)는 “롯데바이오로직스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실행력은 당시의 임상시험을 업계 최고 수준의 속도로 진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보령, 글로벌 항암제 공급난 해소 나선다

대만 로터스 대상 ‘알림타’ 공급

보령이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항암제’ 중심의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을 본격화한다.

보령은 대만 제약사 로터스를 대상으로 항암제 ‘알림타(성분명: 페메트렉시드)’ 공급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2024년 보령과 로터스가 CDMO 계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보령은 2020년 항암제 ‘젠자’를 시작으로 알림타 등 오리지널 브랜드를 잇따라 인수해 왔다. 지난해에는 항암제 ‘탁소텔’ 국내 및 글로벌 비즈니스 전체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와 함께 보령은 항암제 생산과 품질 관리 역량을 강화해 왔다. 예산캠퍼스는 글로벌 수준의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GMP)을 획득했다. 특히 오리지널 제품 생산을 전담 소화할 수 있는 규모와 기술을 갖췄다. 해당 생산 기술을 완



보령이 글로벌 의약품 시장으로 항암제 ‘알림타’를 공급한다. /보령

전히 이관해 내재화한 것이다. 또 알림타의 경우, 기존 분말 제형을 액상 제형으로 개선해 제품 경쟁력과 수익성을 개선했다. 단순 위탁 생산을 넘어 생산 효율성,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CDMO 사업 구조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이울러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심화된 세포독성 항암제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 주요 생산 거점의 생산 중단, 원료의약품 수급 불안정, 제조 시설 부족 등은 필수 항암제 품질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이청하 기자

삼비에피스, 아달로체 안전성·효능 재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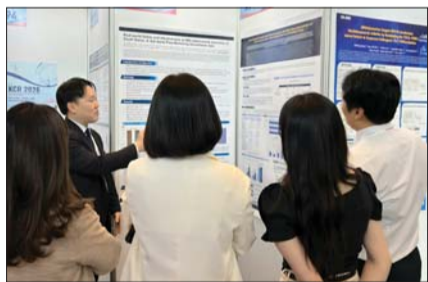
학술대회서 연구성과 발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국내 의료진과 적극 소통하며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14~16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제46차 대한류마티스학회 학술대회’에서 바이오시밀러 연구성과를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휴마라 바이오시밀러 ‘아달로체(성분명: 아달리마μπ)’의 치료 효능 및 안전성에 대한 실제 환자 처방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결과 2건을 공유했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아달로체를 처방받은 류마티스 관절염 및 강직성 척추염 환자 488명의 치료 효과를 관찰했다. 치료 경과에 따른 환자 건강 관련 삶의 질을 평가했다. 주요 지표인 ‘EQ-5D-5L’ 점수는 기존 대비 평균 0.09점 증가했다. 이 지표는 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불편, 불안/우울 등으로 구성됐다. EQ-VAS 점수는 11.90점 개선되면서 삶의 질 향상을 보였다. 해당 점수는 환자가 스



지난 14~16일 진행된 ‘제46차 대한류마티스학회 학술대회’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포스터 발표를 통해 연구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로 건강 상태를 최약 0점부터 최상 100점까지 평가한 값이다.

두 번째 연구는 아달로체 시판 수 조사 결과다. 승인된 모든 적응증의 환자 303명에서 이상 사례 발생률과 중대한 이상 사례 발생률은 각각 29.7%와 2.6%로 집계됐다. 의약품 안전성 소견이 기존 임상 연구 결과와 일치했다.

이와 함께 바이오시밀러 전환 처방의 안정성이 입증됐다. 기존 아달리마μπ 제제를 투여하던 환자들이 아달로체로 전환한 경우, 질병 활성도 점수가 유사하게 유지된 데 따른 성과다. /이청하 기자

동화약품 ‘후시덤’ 다이소 뷰티시장 공략

동화약품은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에서 퍼스트 케어 브랜드 ‘후시덤’을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브랜드 대표 제품으로 ‘베리어리페어’ 6종과 ‘큐어립’ 2종을 내놓는다.

후시덤 베리어리페어 제품군은 SOS 크림, 크림 미스트, 수분 크림, 비비 크림, 선크림, 크림 마스크 등으로 구성됐다. 푸시디움 코키네움 발효 추출 여과물과 판테놀을 복합한 ‘후시덤-P’ 성분을 처방해 피부 장벽을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이다.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서 수분이 손실되고 외부 자극에 민감해지는 것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SOS 크림은 5%의 고품량 판테놀을 함유해 피부를 진정시키고 보호한다. 인체적용시험에서 해당 제품 3일 사용 후, 경미한 피부 수분 손실량 개선율은 55.5%, 외부 자극으로 손상된 피부 진정 개선율은 80.8%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큐어립 크림과 큐어립 마스크는 후시덤-P 성분에 알란토인, 비타민 E 등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이청하 기자

셀트리온, 일본 의약품 시장 존재감 강화

베그젤마 점유율 64%

셀트리온이 글로벌 주요 의약품 시장인 일본에서 고성장을 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올해 3월 기준 일본에서 전이성 직결장암 및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베그젤마(성분명: 베마시주맵)’ 64%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9월 50%의 점유율로 시장의 과반을 넘어섰고 약 반년 만에 14% 이상 격차를 내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셀트리온은 항암제뿐 아니라 자가면역질환 분야에서도 제품 입지를 확보했다. ‘렘시마(성분명: 인플릭시맵)’와 ‘유플라이마(성분명: 아달리마μπ)’가 각각 44%, 19%의 점유율을 올렸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에 우호적인

일본 의료 시장 특성에 적극 대응한 성과라는 분석을 내놨다. 일본은 항암제에 포괄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진료, 수술, 입원, 의약품 등 항암 치료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더한 총 금액을 단일 의료비로 책정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셀트리온 측은 “병원은 가격 경쟁력이 높은 항암제를 사용함으로써 수익성을 높일 수 있고 정부와 환자는 약가가 낮은 제품을 사용해 재정 부담 및 본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바이오시밀러 사용으로 병원·정부·환자 등 이해관계자 전체가 혜택을 누리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셀트리온은 향후에도 일본에서 신제품을 추가해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보이지 않는 보호, 피부는 더 편안해진다.

보호를 넘어, 피부를 위한 케어
살롯 루시드

자외선 차단과 피부 보습 케어를
동시에 담은 UV 차단 투명 패치

- # 눈밑부터 광대까지 완벽 커버
- # 숨 쉬는 통기성 나노 원단
- # 접착제 없이 밀착되는 수분 기반 패치
- # UV-A 98% / UV-B 99% 차단
- # 0.05mm 초슬림 투명 패치
- # 無계면활성제로 안심 사용



Anano Inc. | 070-7773-9931 |

- 가양역_메가팜스 가양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금부빌딩 3층
- 을지로입구_명동퍼스트약국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14 눈스퀘어 1층 (T.02-3789-7277)
- 명동역_Hello K Beauty / WYNN (Currency Exchange, ATM, LUggage)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6길 6, 원스환전소 2~3층

- 양재역_메디피아 약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42, 크리스탈빌딩 1층 (T.02-3463-1547)
- 신논현역_비비 약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76, urbanhive 지하 2층 (T.02-542-8559)
- 해솔리 나인브릿지 / 경기도 여주시 명품1로 76 (T.031-887-9999)
- 제주 나인브릿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로 34-156 (T.064-793-9999)



하나금융,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출발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15일 '2026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출발행사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하나와 함께하는 내일의 시작'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2026년 인턴십 프로그램 사업 소개와 올해 선발된 신입 인턴의 다짐을 들어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앞줄 가운데) 등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한화그룹, 창원서 '맑은 학교 환경운동회' 개최
 한화그룹은 지난 16일 창원 대원레포츠공원에서 경남 지역 초등학교와 가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맑은 학교 환경운동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참가자들은 '논리배출 뉴시왕'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행사 이후에는 주변 환경을 정화하는 플로깅 활동도 진행됐다. /한화그룹



홈쇼핑, 푸른등대 홈앤스마일 장학금 수여식
 홈쇼핑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한국과학기술사 박물관에서 '푸른등대 홈앤스마일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총 52명의 대학생에게 총 52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권진미 홈쇼핑 대표(왼쪽)가 장학생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홈쇼핑



KT, 'KIT 4기' 복귀 활동... AI 윤리캠프 연다
 KT는 대학생 봉사단 'KIT 4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KIT 4기 대학생 봉사자 24명은 4개월 동안 생성형 AI를 활용한 윤리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체험형 콘텐츠로 구성된 AI 윤리캠프를 진행할 예정이다. /KT



시몬스, '2026 파머스마켓' 성료... 1만명 몰려
 시몬스는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경기도 이천의 복합문화공간인 '시몬스 테라스'에서 2026 파머스마켓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파머스마켓에는 날들이철을 맞아 가족, 연인, 친구 단위의 수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행사 기간 누적 방문객 약 1만명, 부스 매출 약 5000만원을 기록했다. /시몬스

한성숙 장관 “지역서점, 상권의 문화 앵커로 육성”

(중소벤처기업부)

공주 산성시장·제민천 일대 방문
 동네책방 간담회... 지원계획 밝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8일 “지역의 이야기가 축적되는 지역서점을 상권의 문화 앵커로 육성할 수 있도록 창업부터 협업, 상권 활성화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장관은 이날 충남 공주에 있는 산성시장과 제민천 일대 상권을 방문해 지역서점 ‘오래된 질문’에서 동네책방 간담회를 갖고 “동네책방은 단순히 책을 판매하는 공간을 넘어 지역의 문화와 사람들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공주 산성시장을 찾아 떡과 반찬 등을 구매하고 최근 고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뉴스시스

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제민천 일대 상권을 방문해 오래된 여관을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공유주택으로 재탄생시킨 ‘공주 청년 공

표, 세종에서 단비책방을 운영 중인 연영숙 대표, 대전에서 다다르다를 운영 중인 김준태 대표 등 총정원 지역서점 대표들이 참석했다. 아울러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이대건 회장과 상권 기획자 및 전문가들도 함께 자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는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이대건 회장의 ‘동네책방 현황과 우수사례 및 향후 발전 방향’발제를 시작으로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역상권과 전통시장에서 사람들을 연결하고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핵심 거점으로서 ‘동네책방’의 역할과 중요성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승호 기자

다. 간담회에는 오래된 질문 지명훈 대

표, 세종에서 단비책방을 운영 중인 연영숙 대표, 대전에서 다다르다를 운영 중인 김준태 대표 등 총정원 지역서점 대표들이 참석했다. 아울러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이대건 회장과 상권 기획자 및 전문가들도 함께 자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는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이대건 회장의 ‘동네책방 현황과 우수사례 및 향후 발전 방향’발제를 시작으로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역상권과 전통시장에서 사람들을 연결하고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핵심 거점으로서 ‘동네책방’의 역할과 중요성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LG엔솔, 배터리 분야 발명·출원왕 선정

박병천·장혁균 등 우수인재 시상

LG에너지솔루션이 차세대 배터리 핵심 기술 특허를 확보한 연구 인재들을 포상하며 미래 배터리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LG에너지솔루션은 서울 여의도 파크원 본사에서 ‘2026 발명왕·출원왕 시상식’을 열고 박병천 양극재기술담당 등 우수 연구성과를 창출한 12명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발명왕 금상은 ‘LMR Cell Chemistry’ 분야 핵심 특허를 확보한 박병천 양극재기술담당이 수상했다. 박 담당은 LMR 양극과 실리콘 음극 조합의

기술적 가능성에 주목해 관련 특허 장벽을 선제적으로 구축한 점을 인정받았다.

출원왕 금상은 배터리 팩 듀얼쿨링과 상하부 벤딩 분야 등에서 다수의 핵심 특허를 출원한 장혁균 선임이 받았다. 장 선임은 열전지 지연과 가스·스파크 제어 구조 등 배터리 안전성을 높이는 팩 설계 기술 개발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은 “구성원들의 창의적 도전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환경을 전폭 지원해 압도적 기술 리더십을 지속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래희 기자 wkh@



지난 14일 서울 서초에 위치한 한국콜마 종합기술원 우보천리룸에서 윤상현 콜마그룹 부회장(가운데)과 임직원들이 '제4회 자율준수의 날'을 기념하며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콜마그룹

콜마그룹, 전사 차원 준법경영 강화

창립 36주년 맞아 '자율준수의 날' 행사

콜마그룹이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며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을 입증한 데 이어 글로벌 수준의 준법 경영 체제 확립에 역량을 쏟는다.

그룹 지주사 콜마홀딩스와 핵심 사업회사 한국콜마는 창립 36주년을 맞아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한국콜마 종합기술원과 세종공장에서 각각 '제4회 자율준수의 날'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그룹 전반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재정비하고 임직원의 윤리 의식을 높였다.

임직원 참여형 활동도 전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윤리 경영을 선언하는 서약식이 진행됐고 앞서 콜마홀딩스는 'CP 공모전'도 열었다. 해당 공모전을 통해 자율 준수 문화에 대한 슬로건을 선정했다.

또 지난 11~14일 한국콜마는 '준법

MBTI', '자율준수 사례 판단 챌린지' 등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히 자율준수 우수 실천자로 뽑힌 임직원 5명은 상패도 받았다.

콜마그룹은 전사 차원에서 준법 경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2023년부터 그룹 창립일 5월 15일을 자율준수의 날로 지정해 매년 기념하고 있다.

아울러 콜마홀딩스의 경우 올해 지속가능경영사무국내 자율준수 전문 조직을 분리해 CP팀을 신설했다. 지난해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CP 등급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기도 했다.

윤상현 콜마그룹 부회장은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가치와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경쟁력”이라며 “대기업집단 지정 이후 더욱 강화된 사회적 책임과 기대에 맞춰 그룹 차원의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계속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lee236@

동국제약, 대국민 금연 캠페인 전개

동국제약이 금연의 중요성을 확산하며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있다.

동국제약은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앞두고 전국 약국을 중심으로 비영리단체 건강소비자연대와 함께 대국민 금연 캠페인을 펼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금연 독려 포스터는 가족 건강을 위한 금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

다. 간접 흡연, 담배 냄새 등이 가족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린다.

또 금연에 효과적인 일반의약품 니코스탑과 연계한 행사도 전개한다.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하고 약국 내 소비자 금연 상담을 운영하는 등 금연 실천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청하기자

GS건설, 가족친화 문화 확산 '앞장'

GS건설은 가정의 달을 맞아 임직원 가족을 회사로 초청하는 '그랑열린데이' 행사를 열고 가족친화 문화 확산에 나섰다.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본사 사옥인 그랑서울에서 진행됐다. GS건설은 임직원과 가족 약 200명을 초대해 자녀들이 부모의 일터를 체험하고 회사와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행사장에는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착용해볼 수 있는 안전장비 체험존과 캐리커처 이벤트 등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시육 옥상 스카이가든에는 에어바운스와 간식 공간이 마련됐으며, 사원식당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특식을 제공했다. /생태이단기자 of58@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채용 △ 감사관 남가영 ◆뉴데일리 △ 군사·우주전문기자(부사장) 김민석

부음 ▲윤복순씨 별세, 이규종(전 KBS 보도영상국장)씨 모친상 = 18일 오전 5시 44분,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20일. 02-6986-4440

은행연합회, 소상공인 컨설팅 성과 공유

2100회 컨설팅... 만족도 94.3점

은행연합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권 공동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 성과공유회'를 열고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4년 12월 마련한 '은행권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의 목적으로 시행됐다. 전체 지원 대상인 800명의 소상공인에게 총 2100회의 일대일 컨설팅이 제공됐다. 예비장

업자를 위한 창업컨설팅과 폐업 예정자를 돕는 폐업 컨설팅으로 나누어 운영됐으며, 참여자 만족도 조사에서 평균 94.3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은행연합회는 컨설팅이 끝난 소상공인이 주거대 은행을 통해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성과공유회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도 추가 컨설팅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2025
JIWOO
Production
Presents

Musical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Welcome to the **Hyunam-Dong Bookshop**



2025.03.01 ~ OPENRUN 루미나아트홀

원작 황보름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클레이하우스

총괄 프로듀서 황기현 | 각색·연출 박예슬 | 작곡·음악감독 김은지 | 안무감독 윤이나 | 무대디자인 주미영

조명디자인 손정은 | 음향디자인 안형록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제작PD 박민서

주최·제작 극단지우 기획 (주)지우컴퍼니 (주)제이엘컬처 협찬 **yes24** 사모계절 티켓문의 **NOLticket** 공연문의 02.332.4902

대형 유통사의 비극적인 자화상



연운열의
푸드특독

국내 대형마트 업계에서 한때 삼성물산의 저력과 영국 테스코(Tesco)의 선진 시스템을 결합해 '유통의 신화'를 썼던 홈플러스*가 이제는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다.

현재 홈플러스*는 MBK파트너스 사모펀드 소유로 오래전부터 매각을 시도하고 있지만 시장의 신뢰를 많이 잃은 상태로 적자의 수렁은 깊어지고, 부채비율은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섰다. 시장 관계자들은 쿠*으로 대변되는 이커머스의 공세를 실적 악화의 1순위 원인으로 지목하지만, 이는 현상을 피상적으로만 바라본 결과다. 홈플러스* 부실의 본질은 내부에서 시작된 '도덕적 해이'와 외국계 자본의 '수탈적 경영 구조'가 맞물려 발생한 구조적 인재(人災)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생명줄은 고객의 신뢰다. 하지만 홈플러스*의 역사는 고객의 신뢰를 기만 한 사건들로 얼룩져 있다. 과거 전국민을 분노케 했던 '경품 사기' 사건은 홈플러스* 내부 기강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수억 원대의 외제차와 고가의 상품을 경품으로 내걸고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대대적으로 수집했지만, 정작 당첨자는 자사 직원이나 그 지인들이 차지하는 기막힌 사기극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고객이 경품 응모를 위해 기재한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건당 수천 원을 받고 팔아치운 행태는 이 기업이 고객을 '동반자'가 아닌 '사냥감'으로 여겼음을 증명한다. 이러한 도덕적 불감증은 단순히 특정 임직원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 전체에 흐르는 '성과 지상주의'와 윤리의식 결여가 만들어낸 암세 포였다.

홈플러스*의 비극을 완성한 또 다른 축은 재투자의 부재다. 영국 테스코 시절부터 현재의 사모펀드 체제에 이르기까지, 홈플러스*의 의사결정권자 대다수는 한국 유통산업의 장기적 발전에는 관심이 없었다. 특히 외국계 고위 임원진과 대주주들은 한국 시장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현금을 국내 유통 생태계 강화에 재투자하기보다, 해외 분사나 투자자들의 주머니를 채우는데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실제로 홈플러스*가 고질적인 영업손실에 시달리는 와중에도 경영 자문료, 배당, 그리고 각종 금융 비용의 명목으로 상당한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개연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매장 리뉴얼과 물류 시스템 고도화에 쓰여야 할 돈이 대주주의

투자금 회수를 위한 엑시트 발판으로 사용되면서, 홈플러스*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처참하게 노후화되어 버렸다.

현재 홈플러스*가 단기 재무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선택한 '세일 앤 리스백(매각 후 재입차)' 방식은 전형적인 시한부 경영의 단면이다. 자산을 매각해 당장의 차입금을 상환하고 부채비율을 낮추는 듯 보이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막대한 임대료 부담이라는 독배가 되어 돌아올 수 있다.

국내 유통 시장의 미래와 고용 안정에 대한 책임감 없이, 오로지 '매각 가치를 높여되팔기'에만 몰두하는 외국계 자본의 시각에서 홈플러스*는 혁신해야 할 기업이 아니라 짜낼 수 있을 만큼 짜내야 하는 '현금 인출기'에 불과했는지 모른다. 익*프*스* 부문의 분리 매각 추진 역시 이러한 '쪼개기 팔기'를 통한 자본 회수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의구심이 짙어진다.

홈플러스*의 사례는 한국 시장에 진출한 외국계 자본과 기업 경영진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던지고 있다. 기업 윤리가 실종되고 재투자가 멈춘 조직은 결코 지속가능할 수 없다. 국내 소비자를 정보 판매의 대상으로 보고, 국내 점포를 자금 회수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경영방식은 결국 유통 공룡의 몰락이라는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

/기술사·칼럼니스트

6월 원유 협상이 던진 생존 과제



기지수첩
신원선
(유통&라이프부)

국내 1인당 흰 우유 소비량이 통계 집계 이래 최저치(22.9kg)로 추락했다. 저출생으로 인한 주 소비층 감소, 지속되는 고물가, 그리고 무관세 공세를 앞세운 가성비 수입 멸균우유의 습격까지 그야말로 국내 유통업계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단순히 우유를 덜 마시는 수준을 넘어 전통적인 '음용유 중심'의 낙농 산업 구조 자체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경고음이 도처에서 울린다.

이러한 위기감 속에서 오는 6월로 예정된 원유 가격 및 물량 협상은 유통계의 손익 계산을 넘어, 한국 낙농 생태계의 판도를 바꿀 분수령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은 명확하다.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원유 배분 구조, 즉 '88.5%의 굴레'를 어떻게 깨뜨리느냐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무려 88.5%는 흰우유나 가공우유 등 직접 마시는 '음용유'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묶여 있다. 치즈, 분유,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의 원료로 쓸 수 있는 비중은 단 5% 남짓에 불과하다.

마시는 우유 소비는 매년 가파르게 줄어드는데, 정작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가공용 원유는 공급받기 어려운 기형적인 구조다. 결국 유통업체들은 남은 원유를 분유로

만들어 창고에 쌓아두면서도 정작 가공용이 25%대에 불과한 설비를 바라보며 막대한 보관 비용과 적자를 감내하고 있다. 만들수록 손해를 보는 악순환이다.

역설적이게도 낙농 산업과 유통계를 모두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흰 우유의 비중을 줄여야 하는' 시대가 왔다. 우유가 남아 돌아 비명이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기존의 음용유 쿼터를 고집하는 것은 공멸로 가는 지름길이다. 6월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낙농가와 유통계, 그리고 방관할 수 없는 정부가 집중해야 할 과제는 명확하다. 철 지난 '음용유 중심 쿼터'를 과감히 재설계하고, 시장 수요에 맞춰 가공용 원유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tree6834@metros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19일 (음 4월 3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귀하를 많은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고 따릅니다. 60년생 원대한 것을 이루겠습니다. 72년생 방식에서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84년생 너무 거만하지 마세요.



49년생 매사에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61년생 고민하던 이상 문제가 해결의 길에 보입니다. 73년생 일을 적당히 처리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85년생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50년생 늘 명량한 기분을 유지하도록 하세요. 62년생 만나고 싶어하던 귀인이 찾아옵니다. 74년생 즐겁고 활기차게 살도록 하세요. 86년생 대중교통사고를 조심하세요.



51년생 사람들로 부터 오해를 받게 됩니다. 63년생 사치를 삼가하세요. 75년생 도박은 인생을 망하는 길의 지름길입니다. 87년생 이상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될것입니다.



52년생 바람끼는 절대로 안됩니다. 64년생 칭찬 또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76년생 어려운 시기가 예상됩니다. 88년생 고생을 각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것입니다.



53년생 본인의 상황에 만족하는게 좋을것입니다. 65년생 다툼을 주의한다면 결과가 좋습니다. 77년생 좀 거대하고 행동하세요. 89년생 신중하게 생각하고 실천에 들어가세요.



54년생 사소한 근심은 빨리 털어버리세요. 66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78년생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90년생 뒷사람한테 안 좋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55년생 재정문제는 당분간 어려워집니다. 67년생 주변인들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79년생 아래 사람들과 화합을 이룰 수 있겠습니다. 91년생 여행은운은 걸립니다.



56년생 여행도 기분전환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68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80년생 길을 잃고 방황할 수 있겠습니다. 92년생 뒷사람을 만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것입니다.



57년생 집에 있음이 좋을것입니다. 69년생 친구들과 오붓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81년생 과음은 절대 금물입니다. 93년생 집안에 반가운 경사가 생깁니다.



58년생 자신의 의지를 확고히 할때입니다. 70년생 판단이 서지 않는 일은 추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82년생 친구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94년생 몸을 조심하세요.



59년생 건강운이 길하지 못합니다. 71년생 지혜가 있다면 무해할것입니다. 83년생 부모님의 도움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깁니다. 95년생 사원들의 단합을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김상회의四季

육신통(六神通)



불가에는 육신통(六神通)이 있다. 육신통은 흔히 말하는 초능력적인 것으로서 인간의 일반적인 인식을 능가하는 초월적인 능력으로서 신통력이나 신력이라고도 한다. 육신통은 신족통,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누진통 여섯 가지를 일컫는데, 육신통은 주로 붓다와 그의 제자 아라한들이 갖추고 있는 능력으로 묘사된다. 역사적으로도 이와 비슷한 초월적 능력을 갖춘 이들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석가모니 그 이전부터도 기세를 떨치던 브라만교를 비롯한 이런저런 수행자 중에서도 모종의 신통력을 가진 이들이 있었으나, 육신통 중 누진 통만큼은 오로지 석가모니와 그 제자들, 즉 불교 수행자들에 의해 성취되는 것이라고 얘기한다. 누진통은 번뇌를 완전히 여의었다는 것으로, 불교의 핵심 사상인 해탈과 열반을 이루는 근간이 되는 능력이자 힘이다.

요즘 초기불교적 교학과 수행이 많이 일반화되고 있는데, 바로 위빠사나 수행이 그러하다. 육신통 중 누진통을 제외한 다섯 신통은 불교 수행자가 아닌 외도(外道) 수행자들도 사마타라 불리는 선정수행으로 증득 된다고 알려져 있다. 수행이 깊은 수행자 중에 다른 사람들의 심중을 꿰뚫어 본다든가, 과거나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언급한다. 선정수행이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터득되는 능력이어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출가 수행자들이 재가자에게 신통력을 보여주는 일은 수행의 목적이 맞지 않는 일이고 사람들의 관심을 세속적인 것으로 굳게 한다고 하여 신통력 사용을 계율로써 엄금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사회에 패악을 끼치는 사이버교의 교주들은 나름 신통에 근접한 능력을 발휘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한다. 자칭 구원 주를 사칭하기도 하며 물질적, 정신적 지배를 하는데, 의외로 쉽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것이다. 신통에 대해 동경은 현재진행형인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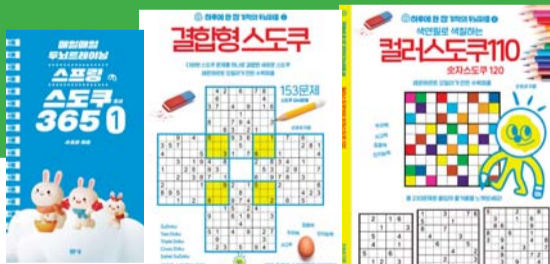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토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5	3	4		6		8		2
		2						
7						3	4	
	7	8			5	9		
1		3				6		8
		6	7			1	5	
	2	5						6
						2		
3	7		4			5	8	9



		3		5	4		6	2	8
		9					4		
8						6	2	9	
						2	3		6
	4				6				8
	5		6	3					
		7	3	6					2
				9					4
2	5	8			1	4			6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미의 열매를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6	8	9	7	2	1	5		
2	1	2	8	9	6	9	7	
9	5	1	2	6	9	2	8	
5	9	1	7	8	2	9	6	8
8	2	9	6	2	5	8	7	1
7	2	6	9	1	8	8	2	9
9	7	8	2	6	8	1	9	2
1	9	2	8	9	7	2	8	6
2	6	8	2	9	1	7	8	5

8	9	2	7	1	6	8	9	2
9	7	8	2	1	6	9	8	
2	1	6	8	9	2	1	7	
7	1	6	8	8	9	2	7	
6	8	9	2	1	7	8	9	2
9	9	8	2	6	2	7	8	1
2	6	2	9	8	7	9	1	8
1	8	7	9	2	8	2	6	9
8	2	9	1	7	9	2	8	6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구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91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18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문화예술 넘어 수출산업으로... K-콘텐츠, 대학지형 바꾼다

대학가, K-콘텐츠 학과 신설 잇따라
한류 성장에 취업경쟁력 강화 전략

중앙대 글로벌 음악산업 인재 키워
성신여대 한류콘텐츠 융합교육 운영
카이스트 컬처테크 분야 공동연구



성신여대 융합산업대학원 K-컬처·엔터테인먼트 전공이 지난해 12월 강혜정 외유내강 대표와 조범규 영화감독(왼쪽에서 네번째), 을 초청해 영화 실무 특강을 진행했다. /성신여대

K팝과 드라마로 확산된 한류 콘텐츠가 대학의 학과 편제와 산학협력 지형까지 바꾸고 있다. 대학들은 K콘텐츠를 문화예술 교육의 한 영역이 아니라 수출 산업과 신산업 인재 양성 분야로 보고, 관련 학과-전공 신설과 기업 협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

18일 대학가에 따르면, 중앙대는 최근 빌보드코리아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글로벌 음악 산업을 이끌 전문 인재 양성에 나섰다. 양측은 음악-콘텐츠 산업 관련 교육과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 현장과 연계한 실무형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중앙대가 보유한 문화예술-콘텐츠 교육 기반에 빌보드코리아의 글로벌 음악 산업 네트워크를 더해 K팝과 음악 콘텐츠 분야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K콘텐츠를 정규 학위과정으로 끌어올

린 대학도 있다. 기존 엔터테인먼트 관련 학과가 문화산업·공연·매니지먼트 교육에 무게를 뒀다면, 최근에는 K팝과 드라마, 뷰티 등 한류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K컬처 교육으로 범위가 넓어지는 모습이다.

성신여대는 2023년 2학기 융합산업대학원에 K-컬처·엔터테인먼트 전공을 개설하고 2024년 1학기부터 수업을 시작했다. K무비, K드라마, K뮤직, K팝댄스, K스타일링 등 한류 콘텐츠 전반을 아우르는 융합 교육을 운영 중이다. 특히 기존

대학 교육에서 음악·영화·연기·콘텐츠 등이 개별 학과 단위로 나누어 운영돼 온 것과 달리, 성신여대는 K컬처 산업에 필요한 요소를 하나의 융합형 교육 체계로 묶은 점을 차별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글로벌 문화산업 현장에서 활동할 실무형 인재 양성이 목표다.

고려대도 지난해 미디어대학 산하에 글로벌엔터테인먼트학부를 신설했다. K팝과 드라마, 영화, 게임, 웹툰, 스포츠 등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교육과정을 통해 산업 현장을 이끌 인

재를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콘텐츠 제작 뿐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와 전략, 글로벌 시장 이해까지 교육 범위를 넓힌 점이 특징이다.

이 같은 변화는 K콘텐츠 산업이 실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과도 맞닿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5년 콘텐츠산업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157조4021억원으로 전년보다 2.1% 증가했고, 수출액은 140억7543만달러로 전년 대비 5.5% 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수출액은 게임산업이 85억347만달러로 가장 컸고, 음악산업 18억145만달러, 방송·영상산업 12억5718만달러 순이었다.

이 대학들의 K콘텐츠 인재 양성 흐름 속에서 기업 협력의 분야와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세종대도 최근 코리아교육그룹과 업무협약을 맺고 K콘텐츠 인재 양성에 나섰다. K뷰티, K푸드, K팝, K엔터테인먼트 분야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실무 교육과 대학원 진학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아공계 대학도 관련 흐름에 합류했다. KAIST는 SM엔터테인먼트와 협력해 인

공지능(AI), 디지털 휴먼, 메타버스 공연 등 '컬처테크' 분야 공동 연구와 인재 양성에 나서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콘텐츠 제작뿐 아니라 기술 경쟁력 확보로 확장되면서 대학 교육도 변화하는 모습이다.

대학가의 이 같은 움직임은 한류 산업의 성장과 확장성에 주목한 결과로 풀이된다. K팝과 드라마, 영화 등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영향력이 커지면서 콘텐츠 자체는 물론 뷰티·식품·패션 등 연관 산업으로 파급 효과가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대학들이 유학생 유치와 신산업 대응,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K콘텐츠 교육을 차별화 전략으로 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정섭 성신여대 융합산업대학원 K-컬처·엔터테인먼트 전공 교수는 "K컬처는 뷰티·식품·패션 등 다양한 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아시아, 유럽 등 해외에서 K컬처에 대한 관심이 실제 유학 수요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대학 교육도 융합형 인재 양성 체계가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가정에서 인성교육... 학부모용 콘텐츠 제공

서울교육청, 가정연계 인성교육 강화
초등학생 대상 '인성톡톡' 8편 제작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용 인성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가정 연계 인성교육 강화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용 인성교육 콘텐츠 '가정과 함께하는 인성톡톡(Talk-Tok)' 8편을 제작해 지난 15일부터 2주간격으로 1편씩 학부모에게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콘텐츠는 학부모가 가정에서 자녀 인성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짧은 영상 형태로 제작됐다. 자녀의 포레갈등, 책임 회피, 거짓말 등 가정에서 겪을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대상 인성교육 캠페인 '열두 달 만나-다 인성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만나다'는 ▲만나면 먼저 인사하기 ▲나부터 고운 말 쓰기 ▲다른 의견에 귀 기울이기 등을 뜻한다.

3~4월에는 친구와의 관계 개선과 기본 생활 습관을 중심으로 운영했고, 5월부터는 가정과 연계해 가족 간 친밀감, 감사 표현, 어른에 대한 예의와 배려-존중 등을 중점 과제로 다루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6 서울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생 응답자의 85%, 교원·학부모 응답자의 97%가 가정과 학교

에서의 인성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인성 함양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가정'을 꼽았다.

콘텐츠는 각급 학교를 통해 가정통신문, 학교 누리집, 온라인 학부모 소통 창구 등으로 안내된다. 유튜브 계정 '서울시교육청TV'와 '학부모시민협력TV'에서도 볼 수 있다.

김천홍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은 "인성교육은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으며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 학생 인성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안성시, 외국인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 나서

건축 현장에 안전자료 QR 배포
17개국 언어로 안전 콘텐츠 제공

언어 장벽과 안전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국어 안전자료를 연결하는 QR코드 서비스가 현장에 배포된다.

안성시는 관내 건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QR코드 기반 안전자료 연계 시스템을 도입했다.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즉시 안전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돼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근로자 비중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대응이다. 건설업 전반에서 언어 소통 문제와 숙련도 차이로 인한 사고 위험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현장 맞춤형 교육 수단의 중요성이 강조돼 왔다.

안성시는 기존 종이 매뉴얼 중심의 안내 방식에서 벗어나 QR코드를 활용한 디지털 안내 체계를 구축했다. 근로자가 현장 곳곳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면 산업안전 관련 전문 자료로 즉시 연결되는 방식이다. 산업안전포털에는 17개국 언어로 제작된 안전 콘텐츠가 제공된다. 안전보호구 착용 영상과 심폐소생술 방법 그리고 안전보건 교육 영상 등이 포함돼 근로자가 모국어 기반으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안성시는 건축과 건축안전팀의 현장 점검 과정에서 QR코드를 배부하고 건축 안전 메시지를 통해서도 이를 확산할 계획이다. /안성(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서울시 "개인컵 쓰고 500원 할인받으세요"

가맹매장서 개인 컵 할인제 시행
텀블러데이엔 2500원 추가할인

서울시가 18일부터 '서울특별시 개인 컵 이용 할인제'를 시행한다. 참여 매장에서 텀블러 등 개인 컵으로 음료를 구매하면 매장 자체 할인 최소 100원에 서울시 지원금 400원이 더해져 1잔당 최소 5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개인 컵 이용 할인제는 지원 단가와 참여 기준이 조정됐다. 시는 지원금을 기존 400원에서 500원으로 높이고, 서울페이가맹 여부와

관계없이 매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서울페이가맹 매장의 경우 결제 방식에 따라 현장 즉시 할인 또는 서울페이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여 매장은 스마트서울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참여 매장이 월 1회 '텀블러데이'를 자율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텀블러데이에 개인 컵으로 음료를 구매하면 1잔당 2500원의 추가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매장당 하루 최대 50잔까지 적용된다.

참여 매장 모집은 지난 6일부터 진행

중이다. 참여를 원하는 매장은 모집 포스터 내 QR코드 또는 서울시 보조사업자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고문과 신청 서식은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 보조사업자 온라인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참여 매장은 개인 컵 이용 시 최소 100원 이상의 자체 할인을 제공해야 하며, 결제 단말기 등에 '개인 컵 할인'을 설정해 즉시 혜택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서울시는 2023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개인 컵 할인제와 서울페이 포인트제를 운영해왔다. 2025년까지 약 26만여 건의 개인 컵 이용 실적을 기록했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20 | 해질 / 19:38

5월 19일 (화)
음력 : 4월 3일

수도권 날씨
18~27°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인천 15/26, 동두천 16/27, 가평 14/27, 파주 15/26, 서울 18/27, 양평 16/28, 인천 17/27, 수원 16/27, 용인 16/27, 평택 15/28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트럼프의 ‘대만 문제 중국과 협상’ 발언, 양안 대립 위험 높여” /사진 뉴시스
▲“시가 금융 시스템 흔들 수도”...엔트로픽, 주요 국 중앙은행에 브리핑

▲AI 넘어 에너지·방산까지...“아시아, 산업 슈퍼 사이클 간다”
▲이란전 변수에 국제유가 다시 급등...브렌트유 111달러 돌파

▲호르무즈 이어 인터넷까지?...이란 해저케이블 통제·파손 우려
▲AI 번역 시대 직격탄...中 대학, 韓·日 등 외국어 과정 축소·폐쇄



내수부진에도
웃은 유통가
체험매장 통했다
니



Life

국내 바이오
특허·원료기술로
비만치료제 승부
L2



원전이 밀고, 양수가 받친다... 에너지 안보 지키는 '삼각 전선'

현장르포

한수원 에너지 안보 핵심기지

정부세종청사에서 버스로 3시간 30분을 달려 도착한 울진의 봄 바다는 잔잔했지만, 원전 마을은 분주했다. 한울 1~6호기와 신한울 1·2호기가 쉴 없이 돌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인력과 계획예방정비 중인 한울 5호기 인력까지 몰려들며 마을 전체가 거대한 에너지를 뿜어낸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산업의 폭발적인 팽창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시대, 울진 신한울 원전과 안동 임하댐 수상태양광발전소, 예천 양수발전소 등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의 핵심 기지를 둘러봤다.

◆ '서울 전력 18% 책임' 신한울 원전 국가 보안시설인 신한울 원전의 출입 절차는 까다롭다. 사전에 인적사항을 제출해 허가를 받았음에도 삼엄한 경계 속 신분 확인을 거쳐야 했다.

시선을 압도하는 돛구조의 원자로건물은 높지만 76.66m로 아파트 27층 높이에 달한다. 내부 기압을 외부보다 낮게 유지해, 흑연 문제가 생기더라도 방사성 물질이 밖으로 새 나가지 못하고 외부 공기가 안으로만 빨리 들어가게 설계했다. 외벽 두께는 122cm, 주중기배관 등은 두께가 195cm에 달한다. 27톤짜리 팬덤 전투기

가 시속 800km로 충돌해도 고작 5cm 정도 손상되는 수준의 요새다.

신한울 1호기는 1400MW(메가와트)급 신형경수로인 'APR1400' 노형이다. 운영 허가기간을 기존 40년에서 60년으로 늘렸고, 내진성능은 대폭 강화해 UAE에 수출된 모델과 같다.

신한울 1호기가 2024년 한 해 동안 생산한 전력량은 8821GWh로, 서울시 전체 전력 소요량(50,352GWh)의 약 18%에 해당한다.

발전소 내부는 화재와 지진에 완벽히 대비된 구조다. 비상발전기 등 핵심 설비



신한울 3·4호기 건설현장.

/한수원

는 지상에 위치한 데다 두터운 방수문이 버티고 있어, 지하 발전기 침수로 수소 폭발을 일으켰던 후쿠시마 원전과는 근본적으로 구조가 다르다.

◆ K-원전, 에너지 믹스의 중심에 서다 총사업비 12조 3000억 원이 투입되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현장으로 이동했다. 올해 4월 기준 종합공정률 29.80%를 기록 중인 현장은 오는 27일 첫 콘크리트 타설을 앞둔 4호기의 기초 지반 다지기 작업 등으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신한울 3·4호기는 오는 2033년과 2034년 각각 완공을 목표로 순항 중이다.

월드컵 경기장 197개를 합친 140만 3921㎡의 광활한 대지에서는 원자로 격납 건물 철관(CLP) 설치와 해저터널 공사가 동시에 진행된다. 바다 쪽으로는 해안선을 건드리지 않고 냉각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저 터널을 뚫어 심해의 차가운 물을 끌어오는 공사가 한창이다.

신한울 3·4호기는 단순한 발전소 건설을 넘어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믹스'의 핵심축이다.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해 단단한 에너지 안보를 구축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핵심 수단이다. 실제로 신한울 3·4호기가 본격 가동되면 연간 2만 358G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이는 2024년 국내 총 발전량 기준 약 3.4%에 달하는 규모로, 연간 484만 가구(4인 가구 기준, 서울시 연간 전력 소요량의 약 40%)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지역 사회에 환원되는 경제적 혜택도 막대하다. 60년 운영 기준 총 2조 1541억 원 규모의 법정지원금이 투입된다. 건설 기간에 지급되는 특별지원사업비 2304억 원을 시작으로 기본지원사업비와 사업자지원사업비가 각각 3511억 원씩 책정됐다.

◆ 주민참여형 '임하댐 수상태양광' 울진에서 경북 안동시 임하댐으로 발길을 돌렸다. 굽이굽이 산길을 돌아 도달한 댐 수면 위로 뜻밖의 장관이 펼쳐졌다. 잔잔한 물결 위로 거대한 태극기와 무궁화

AI·데이터센터 등 전력수요 급증 한수원, 국내 에너지 안보 책임져

철벽요새·전력 심장 '신한울 원전' 신한울 3·4호기 건설 12.3조 투입 탄소중립 달성 '에너지 믹스' 핵심축

국내 최대규모 '임하댐 수상태양광' 태극기·무궁화 형상 태양광 띄워 송전망 증설 없이 친환경 전기 생산

전력망 지키는 '예천양수발전소' 상부댐 저장... 즉각 전기 생산 가능 안정 주파수 유지해 블랙아웃 예방

형상이 태양빛을 받아 반짝였다. 네모반듯한 모듈들이 빛어낸 이색적인 정체는 국내 최대 규모(47.2MW)의 수상태양광 시설이다.

축구장 약 74개를 합친 52.1만㎡ 면적에 총 732억 원이 투입된 이 시설은 산지나 농지를 훼손하지 않는 친환경 발전의 모델이다.

특히 임하댐 수상태양광은 전국적인 현안인 '송전망 부족' 문제를 영리하게 해결했다. 기존 임하댐 수력발전소의 송전계통을 그대로 공유해 별도의 송전망 증설 없이 전기를 보낸다. 낮에는 태양광이, 밤에는 수력이 하나의 선로를 나누어 쓰는 '교차발전' 방식이다. 이곳은 국내 1호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이기도 하다. 인근 마을 주민 4000여 명이 투자자로 참여해, 향후 20년간 약 222억 원의 수익 혜택을 돌려받게 된다.

◆ 재생에너지 '응급실' 예천양수발전 최근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면서 역설적으로 전력망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날씨에 따른 간헐성이 큰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됨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계통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전력계통의 '최후의

보루'는 경북 예천군 은풍면 골짜기의 한국수력원자력 예천양수발전소다. 예천양수발전소는 2011년 준공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신의 양수발전소이자, 단일 호기(호기당 400MW) 기준 국내에서 가장 큰 설비용량(총 800MW)을 자랑하는 곳이다.

임석재 발전부장은 "발전소마다 각 특징이 있는데, 원자력은 대용량으로 기저 역할을, 양수발전소는 주파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는, 전력계통의 안정화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양수발전의 원리는 거대한 '물 배터리(WESS)'다. 전력 수요가 적은 야간이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과다해 전기가 남아돌 때, 그 남은 전기를 이용해 발전기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하부 저수지의 물을 484m 위 상부 저수지로 끌어올린다. 반대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거나 태양광 발전량이 급감할 때는 상부 저수지의 물을 떨어뜨려 발전기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며 순식간에 전기를 생산한다.

임 발전부장은 "상부댐에 물을 저장했다가 즉각 전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배터리라고 볼 수 있다"며 "특히, 전력 수급 상황이 급변할 때 신속하게 투입되는 긴급 구조대"라고 설명했다.

양수발전은 전력망 전체가 무너지는 블랙아웃 상황에서 발전소들을 다시 깨우는 '불쏘시개' 역할도 맡는다.

한수원은 기후변화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신규 양수발전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최초로 지자체 자율유치공모를 도입했다. 그 결과 주민들이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 영동(500MW), 흥천(600MW), 포천(700MW) 등 3곳에 총 4조 3000억 원을 투입해 신규 건설을 추진 중이다. 건설이 끝나도 관광객이 많이 찾아 지역이 꾸준히 발전할 수 있도록 주변 조경이나 둘레길 조성 등도 추진된다.

/울진·안동·예천(경북)=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1 신한울1호기(왼쪽), 신한울2호기. 2 경북 안동 임하댐 수상태양광. 3 예천양수발전 상부댐(왼쪽), 하부댐. /한수원

메트로 한줄뉴스



▲WNBA 박지현, 토론토전서 첫 득점...2점 2 도움
▲손흥민, 빛바랜 '9호 도움+폭풍 질주'...팀 내 4 번째 평점 /사진 뉴스스

▲키움, 외인 타자 전격 교체...'빅리그 50홈런' 장타자 히우라 영입
▲'축구 스타' 네이마르, 심판 실수로 '황당 교체' 후 경고까지 받아

▲이강인, 프랑스 리그 최종전서 교체 출전...PS G는 1-2 패배
▲김가영, 프로당구 시즌 첫 대회 32강 진출...스 룡, 충격의 128강전 탈락